



“겨울철 황사 조심하세요”

인천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매우 나쁨’을 보인 22일 오후 연수구 봉재산 인근 등산로에서 시민들이 등산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황사가 이어지면서 황사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건강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한·중 FTA 선도적 역할 위해

외투규제 개선·협력체계 구축 계획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인천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하고, 인천-중국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로 인해 인천의 경우 가공조립형 제조업 분야에는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고, 기초 소재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세부 분야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한·중 FTA 시범지구로 선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와 협력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중국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무규제 시범구 지정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한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와 같은 수준의 ‘글로벌 규제완화 시범지구’ 조성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는 지난 2013년 9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시는 선택과 집중 논리를 통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우선적으로 교육·의료·금융·관광·문화콘텐츠·R&D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시범지구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시범지구 육성’이 목표다.

시는 또 웨이하이시와 한·중 FTA 시범구로 지정된 만큼 중국과의 무역투자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두 도시 시장간 정기적 회의 체계를 마련하고, 경제부문의 정기적·수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두 도시 간 각 부서별 연결 추진도 목표로 마련했다. 특히 두 도시 간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웨이하이시는 수산양식, 가공 등에 대한 인천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한·중 FTA에 따라 인천 제조업 분야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공조립형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했다. 하지만 기초소재형과 생활관련형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부 분야 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봉제·의복 신발 등은 부정적이고 금속산업 등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플라스틱 제품은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화장품과 가공식품은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협상 타결 협정내용을 면밀히 분석, 인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마련해 중앙정부의 국내 보완대책 마련시 인천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iy96@incheonilbo.com

간접고용 병폐 ... “다시 일터로 가고 파”

대학가 용역 ‘일자리 승계 갈등’ 반복 ... 지역서도 올해 천막농성·상경투쟁



농성이 벌어지는 이유다. 간접고용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대학교는 해고의 빗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대학가에는 ‘해고’ 바람이 분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대학 청소 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정한 임금 기준을 지킨 대학은 한 군데도 없었다. 고용승계 조항을 두고 있는 용역 계약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내놓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은 유명무실하다. 대학교에서 겨울만 되면

농성이 벌어지는 이유다. 간접고용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대학교는 해고의 빗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대학가에는 ‘해고’ 바람이 분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대학 청소 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정한 임금 기준을 지킨 대학은 한 군데도 없었다. 고용승계 조항을 두고 있는 용역 계약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내놓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은 유명무실하다. 대학교에서 겨울만 되면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자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일하던 염모(56)씨는 지난 1월2일 해고됐다. 용역 업체가 노동조합에 인원 감축 통보를 했지만, ‘전원 고용승계’라는 학교 약속을 믿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그는 “잘 못한 것도 없으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하고 있다”며 “관리자는 돈을 안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 몫은 하고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오후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관 앞. 영하의 칼바람이 천막 안으로 스며들었다.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과 라디에이터만이 추위와 싸울 방편이었다. 송도 기숙사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청소·경비노동자 23명은 한 달째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28일

부터는 건물에서 쫓겨나 천막 생활을 한다.

〈인천일보 1월29일자 2면〉 천막 주변 곳곳에선 무지갯빛 바람개비가 돌았다. ‘다시 빗자루를 쥐고 싶다’는 이들의 바람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꽂은 것이다. 신촌 캠퍼스 정문에서 천막에 이르는 길, 900억원을 들인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공사장 펜스는 대자보와 학생들이 그린 바람개비로 가득했다.

송도에서 3년간 일한 김모(55)씨는 “학생들이 음료수도 주고, 많은 관심을 보인다. 학생회관에도 공간을 마련해줘 집에서 가져온 밑반찬으로 끼니를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천막은 5-6명이 24시간 지키고, 오후 6시30분마다 교대한다. 해고되지 않은 동료들도 저녁에 일을 마치면 인천에서 용원을 오고, 주말마다 함께 밤을 지낸다. 한 청소노동자는

“좋은 곳에 다닌다고 주변에 자랑했는데, 속상해서 아무런 얘기도 못했다”며 “밤이면 얼굴을 못 내놓고 잘 만큼 춥고 서럽지만, 모두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인하대 경비노동자들도 새해를 천막에서 맞았다. 경비용역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15명 가운데 9명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2년 동안 일한 박모(63)씨도 마찬가지였다. 박씨는 인천항에서 수출입 화물 내리는 일을 30년 넘게 하다가 퇴직하고 인하대로 왔다. 그는 “기술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은 이 나 이 되면 청소·경비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님 모시고, 자식 가르치느라 노후를 준비한 사람도 많지 않다. 이렇게라도 벌어야 빠듯하게나마 생활이 유지된다”고 했다.

박씨는 업체 소속이었지만, 인하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는 “일자리를 조금만 더 내주면 시설 관리하는 학교도 좋고, 학생들도 안전해서 좋고, 일하는 우리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텐데 이만한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약자들이 점점 바닥으로 물리는 것 같아 서글프다”고 말했다.

인하대 경비노동자 9명은 지난 1월23일 야 고용승계 2명, 다른 사업장 배치 2명, 나머지는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조건으로 업체와 합의했다.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무려 40일 만이었다.

/글·사진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연세대 신촌캠퍼스 공사장 펜스는 대자보와 학생들이 그린 바람개비로 가득했다.

유통기한 지난 수입소고기 85만인분 냉동

2년간 17만kg 둔갑 ... 처벌 솜방망이
엔푸드 ‘영업정지 15일’에 그칠 듯

최근 인천서 불량소고기를 다량 보관하다 걸린 업체의 불법행위가, 일부 업계 사이에서 낱까 지난 수입육을 장기간 유통시키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제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전국의 23개 육류취급업체가 17만421kg인 약 85만인분의 유통기한 지난 소고기를 냉동으로 둔갑시켰다.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이 넘어선 곳도 적발됐다.

인 의원은 식약처에서 수입냉장 소고기 냉동전환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해 이 같이 분석했다. 그는 이 고기들이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량 소고기로 시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현행법이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현재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7~15일의 처분에 머무르고 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영업자 스스로 폐기하게 하며 관할 관청에서는 폐기 현황을 별도로 보고

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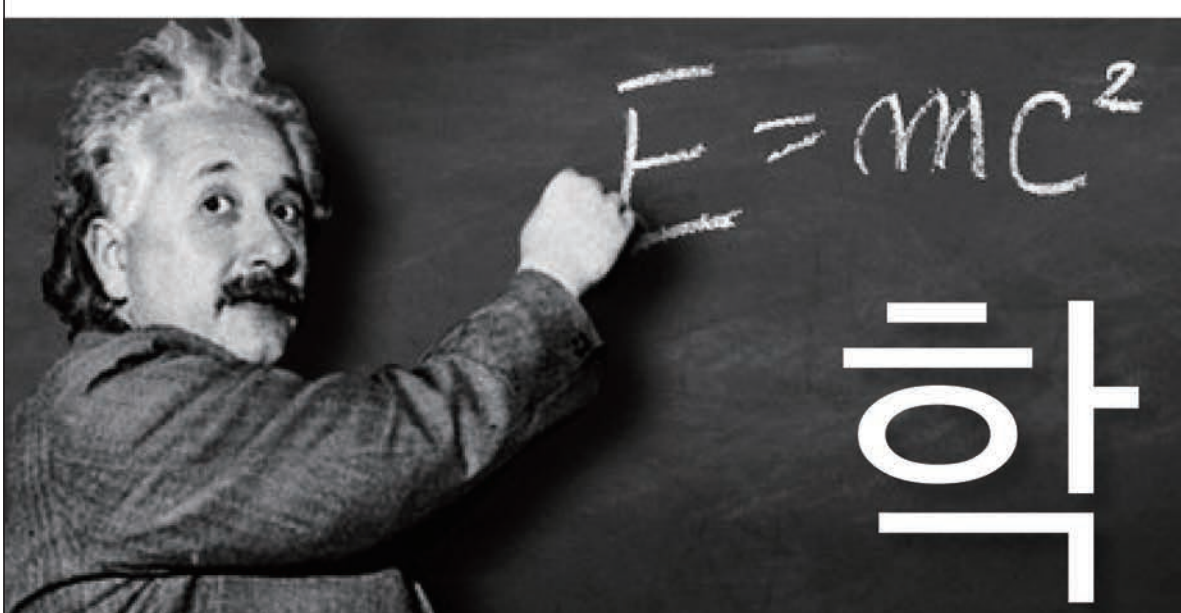
유통기한 3개월 이상 지난 미국산 냉장 소고기 2286kg을 보관한 인천의 ㈜엔푸드 역시 영업정지 15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인천 남동구청은 최근 엔푸드에 영업정지 15일에 대한 사전 예고장을 전달했으며, 소명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불량 소고기 4000만원 어치는 ㈜엔푸드가 폐기하도록 내버려 둘 계획이다.

한편 엔푸드는 국내 굴지의 요식기업인 ㈜엔타스 자회사다. 엔푸드의 고기는 ㈜엔타스의 또 다른 자회사인 고급 한정식 식당 경복궁으로 전량 납품된다. <관련기사 3면>

/정지혜·박범준·최성원 기자 jin@incheonilbo.com

2015년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E=mc²)을 발표한 지 100년 되는 해



학교

좋은 가르침과 즐거운 배움이 만나는 곳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처음 생각해 낸 곳도 학교입니다.
관찰과 경험을 통해 마음껏 상상하는 곳!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www.goe.go.kr www.facebook.com/kgedu1 경기도교육청

지역 일자리 외면 ... 청년실업률 전국 최고

인천, 지난해 12.1%... 산단기업 급증 불구 중기 인력난 여전

지난해 세종시를 뺀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지역 청년(15세~29세) 실업률이 12.1%로 전국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매출 1000대 기업 중 인천 업체 수는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산업단지엔 기업 숫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인천에 사는 청년들이 지역 일자리에 관심이 없어 생긴 현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인력난에 신음하는 인천지역 중소기업계와 청년 실업률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계속돼 인천 경제계 발목을 잡고 있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핑에 따르면 2014년 인천지역 청년 실업률은 12.1%로 나타났다. 전국 청년 실업률이 9%를 웃돈 것에 비하면 인천은 이보다 3%p 정도 높은 수준이다. 대구(11.4

%), 서울(10.3%), 강원(10.2%), 전남(10.0%)도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보였어도 12%대는 인천이 유일하다. 특히, 2013년 인천지역 청년 실업률은 9.3%였는데, 1년 새 3%p 가량 급증한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경북(-3.1%p), 광주(-0.5%p), 충남(-0.4%p) 청년 실업률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 처지는 일자리 수급을 스스로 못하는 상황이 악화되면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중소기업 등에선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인천지역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탓이다.

인천지역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임금

수준과 기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오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 불편한 시선’이 만연해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거부하고, 서울이나 타 지역 대기업 등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인천지역 경제계에도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 예로 지난 2013년 국내매출 1000대 기업 중 인천 기업 수는 39곳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보통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근로자 처우에 더 후할 수밖에 없다. 이 곳 근로자 수만 5만 2667명에 이른다.

최근 인천시가 오는 2018년까지 중견기업 30곳을 지원하는 ‘중견 성장 사다리 기업 육성 사업’을 벌이는 등 앞으로

지역 경제계에 중견기업 몸집도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소기업과 청년층의 다른 ‘눈높이’에서 시작된 청년 실업난과 산업계 인력난의 혼재는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황윤학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장은 “지역 산업계 이해도가 낮아 청년층은 인천에서 취직하려 하지 않고, 청년 구직자 찾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들은 노동력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며 “이 문제의 최고 해결책은 지역 경제 사정에 맞는 산업 인재를 키워 주변 업체들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남구 석암산 수도사 신년법회

지난 21일 남구 석암산 수도사 대웅보전에서 신도들과 내·외빈들이 2015 신년법회를 열고 있다. 인천 수도사는 매년 정월초하루(음력 1월1일)에 해운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나라의 번영과 인천의 발전,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를 갖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불청객 ‘황사’ 한 동안 지속될 듯

인천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한 동안 황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천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내려진 황사주의보가 오후 1시 기준 황사경보로 대체됐다.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400 $\mu\text{g}/\text{m}^3$ 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며, 황사경보는 800 $\mu\text{g}/\text{m}^3$ 이상으로 높아질 때 내려진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해 5도 미세먼지 농도는 434 $\mu\text{g}/\text{m}^3$ 을 기록했으며, 오후 1시 711 $\mu\text{g}/\text{m}^3$ 로 높아졌다.

이번 황사는 중국과 몽골에서 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시교육청, 복지우선지원 학교당 사업비 축소

2000만 → 300만~800만원

소외층 혜택 질 하락 우려

선정기준 변경 ... 대상 校 증가

학생 심리프로그램 운영 차질

복지사 ‘감축·미배치’ 논란도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를 2배 늘리면서 학교당 사업비를 4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기존에 운영되던 프로그램들을 비정상적으로 축소하거나 삭제한 것은 물론 교육복지사 현원까지 줄이고 있어 교육 소외계층 사업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시 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대상 학교를 254개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사업학교가 127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되자 각 학교에 돌아가는 사업비는 현원없이 줄어들었다.

안 그래도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지난해 77억 8000만원에서 54억 5100만원으로 약 30% 축소된 바 있다.

이걸 나눠주자니 지난해 한 학교에 약 2000만원 지원되던 1년 사업

비가 올 때는 300만~800만원이 됐다.

시 교육청은 기초생활수급자 40명 이상을 충족해야 했던 대상 선정기준이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로 전환되면서 불가피하게 학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추진되던 저소득 학생층의 심리·정서, 학습 보강, 문화체험 등의 대부분 사업들이 운영되지 못하거나 전과 같은 질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교육청이 교육복지사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번 위기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대상 학교 가운데 132개교에는 교육복지사를 아예 배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구조에서 복지사를 두지 않는다면 누가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또 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사 3명의 현원을 줄이고 해당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려버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결원이 생기면 충원하지 않고 인원을 감소하겠다”며 “재정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jih@incheonilbo.com

서구 검단농협조합장 출마 5파전

선거 보름 앞두고 후보대결 ‘후끈’

등록 기간 내일부터 25일까지

상호비방·금품제공 행위 금지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서구 검단농협 선거가 5파전 구도로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검단농협합동조합은 한균희(65) 현 조합장과 양동환(56) 전 전무를 비롯해 문우식(58)·조강휘(60)·박휘서(60) 등 전직 이사들의 출마가 예상된다.

검단농협 조합원 수는 본점과 5개 지점, 하나로마트, 농협주유소 등을 포함해 총 1735명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24~25일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정부가 농협의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한 후 처음 치러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선거를 위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거 기간 출마 예정 후보자의 상호 비방이나 흑색선전,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는 전 면 금지된다.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부 행위를 받는 경우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돼 위법 행위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민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10월 ‘프레지던츠컵 골프’ 준비 순탄

시, 성공개최 지원 TF 구성 ... 공무원 사무국 파견·전세계 홍보 주력

오는 10월 인천에서 열릴 2015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2015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회 사무국이 입주한 송도 G타워에 공무원 6명을 파

견했다.

시는 대회 사무국과 경찰·소방·의료 지원 방안을 협의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프레지던츠컵 대회가 225개국에 30개 언어로 중계돼 시청 인구가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대회 기간 인천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개·폐회식과 연계한 시 차원의 홍보

행사, 대회 기간에 시민과 함께하는 야의 공연, 투자유치 설명회도 준비할 방침이다. 또 송도컨벤시아를 활용해 골프 관련 국제회의, 전시회 개최도 마련된다.

대회를 준비 중인 김경미 시 사무관은 “PGA 투어와 긴밀한 협조 아래 2015 프레지던츠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 대회를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인천시의 홍보와 지

역 경제 발전,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골프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2년마다 열리는 프레지던츠컵은 올해 오는 10월 8일부터 4일간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1994년 창설 후 개최국의 현직 혹은 전직 국가원수가 명예 대회장을 맡아 온 관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대회의 명예 대회장을 맡았다.

프레지던츠컵은 미국팀과 유럽을 제외한 인터내셔널팀 간 대항전으로 2인 1조로 포볼·포샷 매치를 치르고 최종일 싱글 매치로 맞대결을 벌여 포인트로 승자를 가린다.

/이주영 기자 leeyj96@incheonilbo.com

www.sinrok.com

태양광발전사업 RPS

노후연금식 수익성 보장!!!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융자지원 연리 1.8% (최대 1억원)

〈인야설치현장〉

〈인천교리에너지밸리 현장〉

판매사업 추천대상

임야, 전, 담, 공장지붕 등
연간 수익률 10~14%

RPS 사업의 장점

- 연간 투자수익률 시중은행 예치금리의 3배
- 최소 25년이상 출력보증, 고정수익
- 국가정책 지원사업으로 안정적
- 투가에 따른 리스크 "제로"

문의전화 **032-464-4400**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록건설 주식회사**

KA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중구지회

하나공인중개사사무소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위치한 공장
공장용지: 1590㎡(481평)
건: 370㎡(112평)
최저매매가격 18억(평당 3백7십만)

평택법원, 검찰청인근 수익률 연10.8%
신축원룸(2014) 삼성전자 고덕지구지근거리
대: 240㎡, 건: 428㎡, 총9세대
매가: 10억8천
(용4억2천/보2억3천/월세: 5백3십)
실투자금: 4억3천, 순수입: 3백8십만, 공실: 無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대: 247.6㎡(75평)
일반상업지역, 빌라부지적격
매매가: 5억2천5백만원

인천시 중구 신흥동 로터리는 은행신축건물
4층 병원임대: 분양면적: 218㎡(66평)
실평수: 149㎡(45평)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한의원 등
1층: 은행ATM기, 약국, 주차장완료
2층~3층: 은행입점완료
5층: 치과입점완료
가시성, 홍보성, 최고요지
보3,000만원/월150만원

인천시 중구 도원동 역세권상가건물
대: 235㎡(㎡71평), 건: 165㎡(50평)
일반상업지역, 가로상권, 가시성 곳
매매가: 5억 보증금: 1억, 월세: 2백5십가능
역세권 도보 2분거리
가로상권, 미래가치양호

인천시 중구 신흥동2가 2층 단독주택
대: 195㎡(㎡59평), 건208㎡(63평)
일반상업지역, 월세 4가구 88만원
2층 주인거주별도
매매가격: 3억

문의 전화 **032) 881-6800**
010-3746-6100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37-20(신흥시장 인근) 대표공인중개사 이충호

인천시 상반기 2조5932억원 예산조기 집행

달갑지 않지만...건전재정 범위내서

정부지침 무리한 지출 독 될수도
상황 따라 일시차입금 활용키로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에 2조5932억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다만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아래 무리 없는 수준에서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일시차입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조기 집행액 규모를 이와 같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산 조기 집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월액 방지, 예산 낭비 방지 등의 목표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예산을 우선 지출하는 정책을 뜻한다.

시는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이전, 융자금, 출자금 등 대상 사업 예산액 4조3567억원 중 59.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중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 지침 58%보다 1.52%p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8826억원, 기타특별회계 6387억원, 기금 719억원 등이다. 시는 지난해 사업의 이월여부가 정해지면 조기 집행 목표액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시는 조기 집행을 위해 신규 투자사업을 이달 안으로 발주하고, 지난해 마무리 안 된 사업을 1분기 이내로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91조5000억원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조기 집행 대상사업의 집행 정도를 평가해 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기 집행은 시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조치다. 재정난을 겪고 있어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데다, 자칫 무분별한 지출이 ‘독’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는 극심한 재정난을 겪던 지난 2012년 목표액 3조3221억원 중 64.8%에 불과한 2조1529억원만 조기 집행에 성공했다. 이후 지난 2013년 2조7498억원 중 2조4327억원 (88.46%), 지난해 3조



이완구 국무총리 남동산단 방문

이완구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남동구 남동산단내 세라믹 텀스텐, 몰리브덴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주)한국전자자료를 방문, 최병덕 대표이사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인회계사·법률가...市 행정 전문가 손길

재정관리·시립박물관 인재영입

민선 6기 인천시가 전문가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열악한 시 재정 관리를 위해 공인회계사를 뽑고, 각종 계약과 원활한 시 행정을 위해서는 법률가의 손길을 빌린다. 여기에 인천시립박물관에도 박물관과 행정이 융합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서 인재를 영입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재정관리담당관실 산하 재정리스크관리팀장 1명을 공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직급은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사무원이며, 계약기간은 2년이다.

시는 최근 조직개편으로 재정리스크관리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각 사업부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재정지원사업 관련 계약·협약·MOU(양해각서), 행사성 사업, 재정부담 관련사업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시는 공고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사전

오늘 5급 이하 공무원 정기인사

인천시가 23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4급 승진인사에 이어 23일 5급 이하 291명에 대한 인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일 조직개편에 맞

불량 쇠고기에 고무줄 냉면 까도까도 ‘양파 같은’ 엔타스

수차례 시정명령·과태료

(주)엔타스가 운영하는 인천지역 경복궁 식당들이 고무줄과 노란 테이프가 혼입된 음식을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 2013년 1월 고무줄이 들어간 냉면을 판매해 경복궁 가좌점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선 2012년 가좌점은 살균소독기 작동 불량으로 시설 개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경복궁 연수점은 같은 해 노란 테이프가 들어간 물김치를 손님상에 올려 시정 명령을 받았다. 당시 연구구는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감응한 과징금 1020만원 처분을 내렸다.

계산점은 2007년 유통기한이 경과한 조랭이떡을 보관하다 지자체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리장 바닥과 조리도구 위생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도

받았다.

학익점 역시 2002년과 2005년, 2006년 식품보전보관기준 위반과 환풍기, 식재료 보관실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당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복궁에 대해 매년 2회 정기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게 5개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복궁 식당에 고기를 납품하고 있는 엔타스의 엔푸드 역시 각종 문제로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구는 지난 2012년 생고기 드레싱 소스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로 엔푸드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엔푸드는 2011년 김치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도 받았다.

/최성환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현직조합장 경로당 금품 제공

인천서 선거법위반 사례 나와

다음달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인천에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인천지역 현직 농협조합장이 경로당에 금품을 건넸다가 고발 조치됐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이 오가는 경로당 26곳을 방문해 총 64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기부행위제한 위반)로 농협조합장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농협 직원과 함께 경로당에 들러 1곳당 유튜브 10만~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원에게 세배와 약수 등 인사를 건넨 뒤 노인회장에 직접 돈을 전달하거나, 자신이 보는 가운데 직원을 통해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1일부터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이며 A씨는 입후보예정자라 문제가 됐다”라며 “직접 동행하거나 돈을 건네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다.

2015학년도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산업대학(산업체위탁교육) 신(편)입학 모집 안내

- 수도권 유일의 4년제 산업대학교 인천캠퍼스(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 전원 입학금 감면(전액), 매 학기 등록금 감면(최대 38%) 및 각종 장학혜택
- 정규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 산업체 근로자 무시험 특례입학, 산업체 근무(전공)과 상관없이 학과선택
- 국가자격증 취득 가능(신입생 경우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중 택일)
- 야간 및 주말수업 병행

〈 2015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단과대학	학과명	모집인원		단과대학	학과명	모집인원	
		신입	편입			신입	편입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과	10	5	공연영상디자인대학	공간디자인학과	20	
	중국학과	20			호텔경영컨벤션학과	15	25
	베트남학과	20			관광경영학과		25
	미래창업학과	15			호텔조리식당경영학과	25	30
보건복지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0		공과대학	항공서비스학과		30
	식품영양학과		25		건축시스템공학과		25
	사회복지학과	20	5		토목환경공학과		20
공연영상디자인대학	뮤지컬연기학과	25			전자공학과	19	
	실용음악과	25			컴퓨터공학과	23	
	공연기획경영학과		25		멀티미디어학과	20	
	무대예술학과	15			융합소재공학과	15	
	방송영화영상학과	20	20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25	20
	패션뷰티디자인학과	20			광고홍보학과	15	5

◆ 모집기간 : ~ 2월 26일(목) 까지 (선착순 모집)

◆ 지원자격

〈학력기준〉

- 신입학(1년)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편입학(3년)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재직기준〉

- 입학시점(2015. 3. 1)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및 납세사실증명 1년 이상인 자
- 1차 산업 종사자(농·어업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에 등록된 주경영인 및 배우자도 지원 가능

◆ 문의처

- 문의처 : 청운대학교 산업대학 ☎ 032) 770-8151~4
-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숙골로 113(도화동)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332호
- 홈페이지 : http://sanup.chungwoon.ac.kr/

해수부장관 PK 독식 인천항 소외

정부 원 포트 정책 부산항 유리...편중인사 불만
규제철폐개정안 결림돌, 산적한 사업 난항 예고

박근혜 정부 들어 PK(부산·경남) 출신 인사가 해양수산부장관직에 연이어 낙점되면서 인천항이 소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항만관련 정책에 있어 원·포트(One-Port) 정책을 주장하는 부산항은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고, 쓰리·포트(Three-Port)에 포함되는 인천·광양항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신임 해수부장관으로 부산 서구를 기반으로 둔 친박계(친박근혜) 유기준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앞서 현 정부 초대 해수부장관은 부산

출신의 윤진숙 전 장관이 역임했고, 직전 장관으로는 경남을 지역구로 둔 이주영 전 장관이 맡은 바 있다.

PK 출신 인사들이 잇달아 해수부장관직에 오르면서 실제로 해양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천 출대는 이어져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해수부가 추진한 항만공사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규제 철폐 법령 개정안의 경우 인천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인천항의 결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된 항만공사 사제 발행의 경우 국비 지원이 인색한 인천항 상황을 고려할 때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는 인천

신항 및 배후부지 개발,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발, 아암물류2단지 등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를 재개발하는 사업도 정부의 예산지원 문제에 발목이 잡혀 3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의 항만관련 인사는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어 항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은 역대 해수부장관 인천 출신이 전무한 점을 내세우면서 박근혜 정부의 편중된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역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구 해양수산부 장관 16명 가운데 PK 출신이 11명으로 69%를 차지했다"며 "인천 출신 장관은 1명도

없는 현실에서 해수부는 PK출신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해양정책이 부산에 집중된 마당에 PK 출신을 해수부 장관으로 연이어 임명하면서 해양정책의 부산 편향이 더욱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재차 비난했다.

문 의원은 "국가의 균형적인 해양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이주영 장관에 이어 PK 출신 유기준 의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해양의 균형적 발전을 확보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특히 서해안 해양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고, 인천항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새정치민주연합 유승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경제활성화 집중해주길”

여야 설 민심 청취

인천시민들이 어려워진 경제를 우려하며, 올해는 정치권이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일표·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인천시당 위원장은 22일 인천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설 연휴기간 인천시민들을 만나 설 민심을 들어본 결과 “경제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홍일표 위원장은 “경기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아 골목상권, 건설경기가 살아나질 않고 셀러리맨들은 연말정산 등에 대한 문제를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이면서 불만이 많다”며 “이런 점에서 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피부로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야당보다 정부·여당의 책임이 무겁다”면서 “특히 청와대 문건과등에 대한 불통 논란, 건강보험료 개편 등과 같은 정책적인 미숙함 등이 계속되는 만큼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시민들의 걱정은 국정이 잘 운영되면서 경제도 살아야 하는데 지금 잘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행정경험도 많고 추진력도 있는 만큼 정치권의 뒷받침을 받아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제활성화로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홍영표 위원장 또한 “경제 악화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다”면서도 그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돌렸다.

홍영표 위원장은 “중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더욱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것 같다”며 “민생이 어려운데 청와대발로 권력 암투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을 실감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민생에 직접 관련돼 있는 정책을 좀 더 개선시키는 노력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엉뚱한 것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며 “민생에 대해서 좀 더 정치권이나 정부가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유승우 여농업인 지원 법안발의

앞으로 여성 및 고령 농어업인들에게 여가활동 지원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사진·이천시)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가정 문제에 대한 고충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농어업인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밝혔다.

/이천·김광업 기자 gskim@incheonilbo.com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 이번주에는 결론날까

취임 2주년·불통이미지 쇄신

측근 아닌 파격 발탁 가능성

설 연휴 이후 정치권의 관심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에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17일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발표하면서 김 실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설 연휴가 지난 뒤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주로 관저에 머물면서 인사 문제를 포함한 향후 정국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그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앞서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초대 허태열 실장과 2대 김기춘 실장 등 친박(친박

근혜)계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잇달아 비서실장을 맡아 박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기존 ‘측근’ 실장과는 다른 성격의 인물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도 그동안 김기춘 실장이 ‘불통’ 이미지 때문에 야권 등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됐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형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서실장 교체에 시사한 이후 후임 인사 하마평에는 권영세 주중국대사를 비롯해 김병호 한 국인론진흥재단 이사장, 새누리당 이주영·이한구 의원, 한광옥 국민대 통합위원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해양수산부장관에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통일부장관에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 교수,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임종룡 농협금융지주회장을 각각 내정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25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증세 화두

여야 지도부 재구성 후 처음

복지 등 치열한 기싸움 예고

오는 25일부터 사흘 간 실시하는 정치·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다시 구성된 후 첫 대정부질문이며,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첫 국회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증세·복지 논란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며, 법안세 정상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를 주장할 전망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

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 구조 조정론으로 야당의 증세 요구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 아젠다인 경제활성화 등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혼선, 자원의료비리 의혹, 방산비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여야 간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설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담배값 인상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및 최저임금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 학대 문제 등도 대정부질문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부동산 사고 팔 때 전문자격사에게

부동산 매물검색은 한국부동산거래소에서

중개업소 방문하실 때 협회 공제마크를 확인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포털사이트 “한국부동산거래소”에 방문하면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ren.or.kr **NAVER** 한국부동산거래소 검색 **Daum** 한국부동산거래소

공제가입, 개설등록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로 문의하세요.

KA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인천 남구 주안로 86, 601외(주안동, 우신주안빌딩) TEL:032)875-6321, FAX:032)875-8731

검색창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를 쳐보세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012-중-24081호

www.conel.co.kr

조루증, 약물로 극복할 수 있다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조루에 대해서 절실하게 해결이 되기를 원하고 많은 시도를 하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다. 환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심각한 질환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조루증은 사정장애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연령과 관계없이 30~50%의 남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은 조루증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루증은 남성이 수의적 사정조절이 부족하여 스스로 원하기도 전에 클라이막스에 도달해 사정해버리는 증상으로 성의학에서는 보통 질삽입 후 약 2~3분 이내에 사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현재 조루의 치료는 수술법과 비수술법이 있고 원인과 상태에 따라 먹는 약을 병행하기도 한다. 수술법의 경우 음경의 감각 신경을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간단한 수술이며 이보다 더 간단한 감각을 둔하게 하는 시술이 약물주입법이다.

약물주입법은 비수술적으로 10분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시술로서 절개나 봉합과정이 없는 비수술적 치료이므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효과가 없을시 한번 더 재 주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간단하며 효과적인 시술법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만 조루가 치료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정시간이 조금 연장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정을 본인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임으로 하루빨리 비노기과 전문의와의 상담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더 큰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조루 수술 및 약물주입법 이후 체질에 따라 부종이 생길 수 있으며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코넬비뇨기과의원
032-423-8270
인천롯데백화점 뒤

NAVER 코넬비뇨기과 를 쳐보세요

‘구도’ 인천, 인천을 지칭하는 여러 수식어 중 단연 첫 순위에 오르는 이 단어에는 스포츠에 대한 남다른 인천 시민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 비단 야구란 단일 종목 뿐 아니라 전 종목에 걸쳐 인천이 가진 스포츠 저력은 남다르다. 특히 인천 하면 빼놓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핸드볼이다. 이 중 인천의 남자 핸드볼을 선봉에서 이끌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핸드볼팀을 주목해야 한다. 모기업의 재정난에도 곳곳이 실력으로 승부하며 성적을 내고 있는 이 팀의 비결, 바로 강일구 감독을 중심으로 15명의 선수가 가족처럼 똘똘뭉쳐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 핸드볼팀은 과거와 현재보다는 더욱 미래로 향하게 된다.



한국 핸드볼 수준장으로 활약한 강일구 감독이 이끄는 인천도시공사 남자 핸드볼팀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o@incheonilbo.com

열악한 환경에도 “우리는 하나”... 미래 향해 ‘강슛’



강일구 감독

2014년 SK핸드볼코리아리그, 3년째 4강 문턱에서 좌절하며 팀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강일구(39) 감독이 출사표를 던졌다. “과거의 영광에 침체된 지금 우리 팀에게 필요한 것은 한 게임이라도 잡아야 하는 승리이다. 힘들고 지쳤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 골만이라도 더 넣자.”

이 말에 힘을 얻은 인천도시공사 핸드볼팀이 4강 진입에 성공했고, 관심에서 사라진 팀이 다시금 주목받았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며 인천도시공사는 건축 경영이 불가피했다. 덩달아 핸드볼팀에게도 재정 악재가 드리워졌다. 장기 불황에도 인천도시공사는 핸드볼팀에 대한 지원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들에게 동기 부여할 기회를 줬다. 바로 팀에서 활동했고, 한국 핸드볼 골문 수준장으로 이름을 날린 강일구 감독을 전격 영입한 것이다. 강일구 감독은 핸드볼 선수 출신 첫 감독이란 타이틀에 이름을 올렸다.

팀의 전후 사정을 잘 아는 강 감독, 그는 성적을 이유로 팀을 다그치지 않았다. ‘형님 리더십’이란 말보다는 가족과 같은 신념으로 팀을 이끌었고, 사령탑에 오른 이듬해 3년째 4강 문턱에 좌절한 팀을 4강까지 올려놨다.

모기업 인천도시공 경기 불황 악재

전용 구장 커녕 체조경기장 빌려써

지난해 SK리그 4강 진입 값진 성과

첫 선출 감독 ‘강일구 사령탑’ 활약

“팀에 활력 시민 관심·응원 등 절실”

▲인천도시공사 핸드볼팀

인천도시공사는 2006년 7월, 국내 5번째로 사회 공헌 및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해 임직원이 의기투합해 핸드볼선수단을 창단했다. 창단 첫해 전국체전에서 3위를 하며 국내 최정상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전국체전 2년 연속 우승, 전국대회 우승 2회 및 준우승 8회를 차지했다. 또 국제대회 개최 시 5명 이상이 국가대표로 선발돼 2008년, 2010년 아시안선수권대회에서 우승, 2010년 광저우아시안경기대회 우승, 2012년 런던올림픽 아시아예선에서 1위를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우리나



라 남자 핸드볼팀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실업핸드볼은 여자 8팀, 남자 5팀 총 13팀에서 지도자 및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이중 남자는 인천도시공사, 두산, 웰컴코로사, 충남체육회, 상무 5팀이며, 군부대인 상무를 제외한다면 4팀이 실업선수들의 주 활동무대인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열악한 재정에도 핸드볼팀 운영에 관심이 크다. 부동산업이 주력인 인천도시공사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파장을 일으킨 2010년부터 위기경영체제에 돌입했고, 이러한 경영환경 아래에서 경영진에게 있어 선수단의 운영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인천도시공사의 위기경영체제는 핸드볼선수단에도 영향을 미쳐 선수단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정체되는 상황을 야기했고, 그 결과 2013년에는 전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공사는 단기간에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력이 검증된 실업팀 선수의 스카우트를 지양하고 대학 졸업선수를 영입해 선수를 육성한다는 철학으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중장기발전방안으로 입단선수가 지도자까지 성장해 중기적으로는 인천도시공사 핸드볼의 발전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핸드볼의 발전까지 생각하는 비전을 품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핸드볼팀은 변화하고 있는 팀이

고, 더 멀리 뛰기 위해 움츠리고 있는 팀이다. 현재 변화는 기존의 든든한 골문과 속공으로 대변되는 인천도시공사 특유의 색깔을 17년간 국가대표골키퍼에서 지도자로 거듭난 강일구 감독의 연금술이 어떤 팀을 완성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심이 곧 핸드볼에겐 큰 힘

인천도시공사 핸드볼팀의 안팎 사정은 좋지 않다. 그 중에도 전용 경기장이 없어 훈련할 때마다 경기장을 빌려서 쓰는 형편이다. 요즘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때 쓴 체조경기장 한편을 빌려 쓰고 있다. 이 곳에 핸드볼 훈련 때 부상을 입지 않도록 새로 코트를 깔았다.

핸드볼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지역 연고 팀이 경기를 할 때도 경기장은 한산하다. 심지어 인천도시공사는 물론 인천시에서도 경기 관람에 소홀하다. 선수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응원이 없다면 핸드볼은 더욱 침체되는 모양이다.

강일구 감독은 “인천도시공사 핸드볼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큰 뜻을 차지한다”며 “선수들은 시민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의 남녀 핸드볼팀이 지속적으로 모든 경기에서 우승하고 나아가 국가대표 선수가 가장 많이 선발되는 팀으로 거듭나 인천이 명실상부한 핸드볼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 핸드볼 발전의 메카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yj96@incheonilbo.com

홍륜사 정토원

도심 속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품격 봉안시설을 자랑하는
홍륜사 정토원 봉안당!!

- ◆ 신뢰할 수 있는 운영과 관리
- ◆ 홍륜사와 영구히 존재
- ◆ 다양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 ◆ 가까운 곳, 편리한 교통

이(개)장 관련, 장례/화장 절차에서
안치/봉안까지 24시간 상담 가능!!

24시간 상담문의 (032)834-1131/832-1131

www.jungtowan.co.kr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806-12

25년 인천 비즈니스호텔의 자부심이 베스트웨스턴을 만나다.

2015년 2월 1일 새롭게 도착하는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인천로얄호텔이 오는 2월 1일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난 2014년, 8개월동안 전격식 및 연화장 리모델링 공사에 이어 인천 호텔브랜드 성장률 1위를 기록한 인천로얄호텔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4,000여개가 넘는 호텔, 400,000여개의 객실을 서비스하고 있는 단일 브랜드이자 세계최대의 호텔 브랜드 베스트웨스턴으로 세계적인 발돋움을 도모한다.

◆ 새롭게 떠오르는 비즈니스 허브, 인천 속 25년 명성을 잇고 있는 인천로얄호텔
시장을 비롯한 시내 중심가에서 10분, 각종문화중심지와 백화점에서 1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30 분거리에 위치한 인천로얄호텔은 새롭게 떠오르는 인천시 도심의 특급호텔이다. 140개의 다양한 타입의 안락하고 편안한 객실과 최대500명 이상의 고객들을 수용하는 컨벤션센터 연화장의 홀들과 최신시설을 갖춘 국제행사부터 인천도심의 맞춤형미팅을 주도하는 비즈니스호텔의 선두로 자리잡고 있다.

◆ 왜 베스트웨스턴인가?
베스트웨스턴은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및 관광객에게 인지도가 높으며, 중앙예약시스템과 다양한 온라인 예약망 확대를 통해 안정적 고객 확보, 70 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매뉴얼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며, 다양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호텔로 인지도를 높이는 브랜드이다.
인천로얄호텔은 기존 호텔들이 추구했던 단순한 인테리어공사를 통한 외관 변화에서 그치는 단순한 리뉴얼이 아닌 서비스, 음식, 마케팅 등 속까지 확실한 바꾸어 내실을 다지겠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세계적인 체인브랜드를 통한 지속적인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과 제휴 마케팅을 확장하여 25년 동안 쌓아왔던 기존의 고객층부터 아직 흡수하지 못한 새로운 고객층까지 확보하겠다는 욕심이라 할 수 있겠다.

◆ 리오트를 맞이한 다양한 혜택제공
인천로얄호텔은 이번 베스트웨스턴 브랜드 도입을 홍보하기 위해 기존 고객에게는 감사혜택을 선고객에게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객실은 하프데이, 풀데이 세미나 패키지를 통해 세미나실과 오찬 또는 조식뷔페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1월 10일부터 양식당 티마는 다양한 소규모모임과 가족모임을 위해 침실에서 조리장이 갖추어진 스테이크를 서비스하는 리뉴얼된 소규모모임을 선보인다. 그밖에도, 히트스 호텔권의 기간연장을 통한 합인서비스, 추천이벤트 숙박권증정 이벤트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텔 홈페이지(www.royalhotel.co.kr)를 참조)

예약 및 문의: 032)421-3300

‘어린이집 아이’ 앱 실시간 안전 확인

인천 중기 ‘W-KIDS’ 개발... 교사 원아 사진·영상 등 학부모 전송

“아동학대 문제 소통통해 해결”

이따른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녹화위주의 단순 CCTV를 뛰어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블유키즈는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해 어린이집 운영 상태와 자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프로그램 W-KIDS는 내 아이의 모습을 찾기 위해 수십 번 마우스를 누르던, 실효성 보다는 어린이집 홍보에 치중돼 있던, 지금까지의 홈페이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사진 분류와 팝업설정을 비롯해 행사관리, 식단관리 등 각종 기능이 추가

된 것이다.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과 기술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아와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한 점은 기존 홈페이지 운영방식에서 크게 진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전체 원생과 각 반, 특정 원아를 선택 후 해당 학부모에게 곧바로 메시지와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학부모는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내 아이를 찾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수십 개가 넘는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시간을 쏟아왔던 점에서 교사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학부모들은 보다 높은 신뢰를 갖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W-KIDS를 통해 한 번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블유키즈는 현대 사회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변화에 맞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구축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동학대 문제를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게 더블유키즈 측의 설명이다.

실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더블유키즈는 추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 등이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가 늘어날수록 서로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신뢰가 쌓이면서 아동학대 문제도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민재 더블유키즈 대표는 “단순히 CCTV를 설치한다고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나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가 학부모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동기다”라고 말했다.

/김창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관세청, 설 성수품 신속통관 지원

김낙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관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전국 47개 세관에서 설 성수품 등의 신속한 통관 지원과 수출화를 적시 선적을 위해 설 명절 대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주유소·LPG 충전소’

GB내 설치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 두 개의 행정구역이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일반 그린벨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유소는 다른 주유소와 2km 거리, LPG 충전소는 다른 충전소와 10km의 거리만 유지하면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에 있는 주택을 도로 신설 등의 상황으로 옮겨져야 할 때 기존 주택에서 2km 이내에 있는 같은 시·군·구로 한정하던 규정도 완화했다.

/김창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4등 Lotto		(638회)
당첨번호		보너스
7	18 22 24 31 34	6
순위	당첨자 수(명)	당첨 금액(원)
1	7	2,229,403,179
2	41	63,438,302
3	1,719	1,513,072
4	84,781	50,000
5	1,422,596	5,000
※1등 당첨지역		
경기 성남, 광주 광산, 경기 남양주, 광주 광산, 경기 수원, 인천 연수, 인천 남구		

내달 분양 품년... 5만5252가구 연중최대

상반기 물량 60% 집중

오는 27일부터 청약제도가 달라지는 가운데 3월 주택물량이 5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연중 최대 규모가 쏟아진다. 상반기에 올 한 해 예정물량의 60%를 넘어서는 등 공급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3월 전국적으로 5만5252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올 한해 공급물량인 29만9560가구의 11.1%로 연중 최대 물량이다. 우선 대림산업이 용인 풍덕천동에서 ‘e편한세상 수지’ 1237가구를 공급하고 한신공영은 시흥 배곧신도시에서 1356가구를, 롯데건설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롯데캐슬골드파크 3차’ 1238가구를 분양한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도 대우건설

(832가구), 아이에스동서(489가구), 반도건설(545가구) 등이 차례로 새 아파트를 선보인다.

건설사들이 내달 물량을 쏟아내는 것은 이달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때문이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지고 청약 가능 주택형 변경이 자유로워지는 등 청약 요건도 완화돼 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실제 건설사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시장의 열기가 지기 전에 사업물량을 털어내려고 분양 일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건설사들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3만3325가구, 5월에는 4만7781가구 등 연이어 물량을

쏟아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분양물량은 총 19만2640가구로, 올해 계획물량의 64.3%가 집중된다.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746만명이다. 수도권 1순위 가입자는 506만명이다. 3월이 되면 가입자 수가 더욱 늘어나고 이들은 본격적으로 청약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곳이나 지방 또는 비인기지역은 추후 미분양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무리한 청약보다는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창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청라 2차 골드클래스’ 269가구 공급 24·25일 접수

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개 사업장 269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2월 분양시장이 마감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공급 일정을 3월로 조정하고 있는 모양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에는 인천 서구 ‘청라2차골드클래스’ 269가구가 공급된다.

세종종합건설이 인천 청라지구 A23

블록에 공급하는 물량으로 지하1층~지상15층 82㎡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다.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인접해 있고 하남융타운, 신세계복합쇼핑몰, 차병원 그룹 의료복합타운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 IC와 가까우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서울-청라 간선버스를 이

용해 서울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청약은 24일 1·2순위를 시작으로 25일 3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는 3월3일에 발표된다. 계약은 3월 9~11일 진행되며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이다.

당첨자발표는 전국 6개 사업장에서 예정돼 있다. 경기 수원시 ‘수원호매실호반 베르디움2단지’, 경기 시흥시 ‘시흥배곧 호반베르디움3차(B11)’ 등이다.

/김창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3년간 이자지원

포스코건설, 58층 4개동 766가구

호수조망... 주민 편의시설 다수

청라역 개통 등 사통팔달 교통

포스코건설이 청라국제도시에서 청라 포스코 더샵 레이크파크를 3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분양 중이다.

청라지구는 지난 1년간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르면서 청라 롯데캐슬의 경우 대형 평형을 제외한 잔여세대가 모두 소진된 상태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는 올해 연말까지 6조 70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기반시설 완공을 앞두고 기대감이 상승해 지난 2년간 전용 84㎡의 경우 실거래가가 1억 2000만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금융타운, 신세계 복합쇼핑몰, 의료복합타운, 시티타워 등 대형 개발호재도 청라지구의 부동산 가치상승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한복판을 관통하는 커널웨이를 중심으로 인천 전역을 관망할 수 있는 시티타워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의 로봇랜드파크, 글로벌 금융타운과 복합쇼핑몰도 공사가 한창이다.

이미 입주를 마친 이 단지는 현재 100~137㎡ 시행사 보유 잔여 물량을 분양

중이며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청라지구에서 가장 높은 최고 58층 높이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최고 58층 4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100~209㎡ 766가구를 구성되어 있다.

단지 내부에는 대형 욕탕 및 건식 및 습식 사우나를 갖춘 목욕탕, 스크린골프장, 골프연습실, 피트니스센터, 문고, 키즈룸, 독서실, 스트레스 해소방 등 다양한 입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또한 건폐율이 8.98%에 불과해 단지 환경이 매우 쾌적하며 녹지율이 46%에 달해 단지 절반 가까이 조경공간으로 조성됐다.

지난 6월 완공된 청라 중앙호수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커널웨이, 대왕참나무 숲, 계수나무 숲 등을 바로 곁에 두어 자연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서울 접근성도 교통망 확충으로 보다 편리해 졌다. 지난해 6월 공항고속도로 청라IC가 개통됐고, 7월에는 청라~강서간 BTC가 운행을 개시했다.

청라IC를 이용할 경우 30분 이내에 여의도에 도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 공항고속도로와 서울역을 잇는 청라역이 개통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됐다.

/김창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아직도 모르십니까? You Tube 창에 고동디자인 을 검색하세요.

제 19회 인천·경기 환경대상수상

친환경 자연보호 질적보도

고동디자인

친환경 자연보호 질적보도

불연테스트

불에 타지 않는다. 연기가 나지 않는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 뒤쪽 열 전도율이 낮다.

T.032.831.4500 / F.032.831.4501
www.kyodong.com /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84 305

KYODONG DESIGN

실내건축공사면허업체/디자인전문회사면허보유/전기사업자면허보유/시설물유지관리면허보유

WLH 화림국제의료센터
(외국인전용병원)

화림요양병원

화림전문요양원

한·양방협진병원

암,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후유증, 희귀난치병, 신경통, 노인질환

임 원회 요양병원
신계서고 요양병원
저동차서고 요양병원
노인장기 요양병원
노인 전문 요양원
한·양방물리치료재활치료
한방 침, 뜸, 부항(약침,특수치료)

입원문의 (032)751-8370, 8373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00-1(인천국제공항신도시) www.whalimmd.com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최첨단 융복합’ 개발 구체화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결포동 일대를 최첨단 융복합문화산업단지로 개발하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설명회’가 계획돼 사업이 좀더 구체화되고 있다.

시는 오는 26일 고촌읍 사무소에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안)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김포시청과 고촌읍사무소, 김포 1동 주민자치센터, ㈜한강시네폴리스자

사업기한 ‘2년’ 연장

산단 조성계획 변경

시, 26일 합동설명회

산관리 사무소에서 주민공람과 함께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설명회 대상 부지는 전체 사업부지

230만8937㎡ 가운데 1차 사업부지 124만3000㎡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으로 지난달 경기도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신청돼 관련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맞춰 담게 된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는 산업시설용지내 복합용지 및 공동주택단지 신설에 따른 학교시설 등

이 추가됐다.

앞서 김포도시공사와 국도이앤지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설립했다.

또 법인설립과 함께 2009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로 돼 있는 사업기한을 2017년 12월까지 2년을 연장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산업단지변경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보상 및 부지조성 공사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달에는 보상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한강 하구 김포대교 남단인 고촌읍 향산리에서 한강로(올림픽대로-한강신도시)를 따라 결포동까지 이어지는 230만8937㎡를 영상과 문화, ICT분야가 접목된 최첨단 문화복합단지로 탈바꿈 시키는 1조2000억원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on@incheonilbo.com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자 늘리고 이자 줄인다

성남시, 올 40억 증액·1% 인하… 기존 집행 사업비도 적용

성남시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금리를 전년 대비 1% 인하하고 융자 규모는 전년 대비 40억원 늘어난 9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금 융자 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시의 리모델링 자금 융자금리 인하는 저금리 경제 상황과 공공자금의 운용 목적에 맞춰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자금 융자금리 인하에 따라 리모델링 조합이 최대 20억원 한도의 사업비를 신용 융자받을 경우 종전 4.5%에서 3.5%로 조달할 수 있게 돼 사업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금리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생하는 융자부터 적용되며,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비에 대해서도 공고일 이후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

은 조합이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성남시청 도시재생과 리모델링지원팀에 신청서를 내면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와 규모를 정해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최초 3년이고, 1년 단위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융자금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이에 앞서 시는 대한주택보증과 지난해 7월 자금 융자 사무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해 자금 융자 제도를 도입했다.

같은 해 12월 한술주공5단지 조합이 처음으로 조합운영비 7200만원을 융자 신청해 사용하고 있다.

자금 융자 제도는 자금조달능력이 떨어지는 조합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와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남시는 상반기 중에 융자규모를 조합당 35억원으로 증액하고 융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융자사무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협의를 거쳐 융자계획을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여성리더역량강화 워크숍(여성단체협의회) ▲달인 아빠를 찾아라(한자녀더갓기 운동연합 여주지부) ▲전통성년례(여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여주대학교) ▲나DO, 너DO(여주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사업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주=김광업 기자 gskim@incheonilbo.com

/성남=허찬희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광주시 호국영령 정충묘 제향

지난 21일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정충묘에서 조상들의 넋을 기리는 ‘정충묘 제향’이 열린 가운데 조역동 시장이 제를 올리고 있다. 한편 이날 제향에는 노철래 국회의원을 비롯, 박기준 문화원장, 이주석 정충묘 도유사, 도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유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충묘는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대왕을 구출하고자 출병한 전투에서 전사한 경성좌도 병마절도사 허한 장군을 비롯 경성우도 병마절도사 민영 장군, 안동영장 선세장 장군, 죽주산성 성주 의의배 장군 등 4명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사진제공=광주시

고양 화정-신사동 도로개설공사 발주

260m 구간 총사업비 105억 내달 착공 내년 9월 완공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는 ‘화정동-신사동 간 도로개설공사’(2-2, 은못이천구간)를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정동-신사동 간 도로는 백신도로 구간 중 원흥지구에서 시도 69호선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공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시행되며 보상비 47억원, 공사비 58억원으로 총사업비 1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길이 260m, 폭 26.5m(4차로)로 시공되며 중앙분리대 식수대, 보

도내 가로수 및 가로화단, 자전거도로 설치 등 친환경적인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행되는 공사구간은 화정동-신사동 간 도로 중 일부구간으로 기존 도내동, 성사동 등 취락마를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구간별로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원흥지구까지는 현재 62% 공정율로 시행중으로 2016년 9월 개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원흥지구 인접구간은 2014년 7월 준공해 개통된 상태

로 금회 발주구간 이후 화정동까지 연결되는 구간은 향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발주 예정이다.

정병춘 공사과장은 “화정동-신사동 간 도로는 광역도로로 지정된 노선으로 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구간에 개통되면 고양시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한축을 담당할 것이며 본 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이종훈 기자 jhl@incheonilbo.com

과천시 3·1절 범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

부시장 단장 추진단 구성
월말부터 게양 동참 유도

과천시는 제96주년 3·1절을 맞아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시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일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단을 구성해 ‘시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중앙행정기관이 밀집돼 있는 청사로 약 700m를 ‘청사로 365 태극기 거리’를 조성해 2월부터 연중상시 게양해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또 시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에서 가정용 태극기와 국기 꽃이대를 판매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수거함도 설치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누구나 태극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배너를 신선했다.

또한 국경일엔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6개동 1개 단지 1개동을 지정해 태극기 달기 모범 지역으로 조성해 과천지역 어느 동에서나 태극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경일이나 국가 기념일엔 과천의 집집마다 태극기가 휘날릴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화랑역세권 개발 방향 토론

안산시 내일 시청 대회의실

안산시는 오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시의원, 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화랑역세권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그동안 추진됐던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경과 설명에 이어 신한산대학교 지의상 사회교육원장 주제로 안산시의회 김동수 의원, 손관승 의원, 관련분야 교수 등 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자유토론 후 참석한 시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2013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과 상호 합의해 종료된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이후 화랑역세권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다.

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 화랑역세권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화랑역세권지역은 소사-원시선의 화랑역이 2017년 개통예정이며 지하철 4호선과 연결된 안산선, 수인선 등이 지나가는 환승역세권으로 초지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는 안산시 관내에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www.tbroad.com

대한민국 케이블 TV No.1 티브로드

얼려?

전국이라며

우리동네엔 없는

GIGA?

우리동네다되는

기가급인터넷

스마트 320

14,000원

★방송 HD이코노미(월 10,000원/4개월 11,000원) 가입시 추가요금 부가세 포함가 15,400원 / 3년약정

스마트 320 인터넷은 다운로드 최대 320메가 속도를 제공하며, PC 성능, 인터넷 망, 서버 지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broad 남동방송

1877-9010

용인시 기업규제완화 체감도 낮다

상의 “전국 211위 최하위 그룹”…기업 “행정관행 여전”

용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지역 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전국 최하위권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기업유치 및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고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기업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 포함)

에 위치한 622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규제관련 기업체감도 조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결과 용인시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211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조사는 지역별 소재기업의 지자체 규제관련 주관적 행정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형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인지 등 5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용인시는 기업체감도에서 64.3점으로 전국 평균 69.3점보다 낮아 C등급으로 분류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규제합리성 (65.1점·전국 198위), 행정시스템 (65.4점·200위), 행정형태 (65.6점·202위), 공무원태도 (67.7점·211위), 규제개선의지 (66.1점·200위) 등으로 5가지 항목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며 C등급을 받았다.

업체 관계자들은 “시장의 적극적인 기업관련 업무 추진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들의 규제완화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적사회의 행정관행 때문인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기업 관련 행정지원 등이 그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덕성산업단지지를 비롯해 중·소규모 산업단지 유치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기업행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허천희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여주시장 사회복지시설 방문

최근 설명절을 맞아 원경희 여주시장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소망의 집’과 ‘여주오렌지요양원’을 방문, 생활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있다.

/여주=김광섭기자 gskim@incheonilbo.com·사진제공=여주시

기업규제완화 체감

안양시 ‘매우 우수’

안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2014년 기업환경순위 및 전국 규제지도’ 결과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한상의가 전국 6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에 대한 기업체감도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 결과 시는 행정규모나 기업체수가 비슷한 도내 인구 50만 이상 9개 지자체 중 경제활동 친화성 1위, 기업인 만족도는 2위를 차지하는 성적을 거뒀다.

앞서 시는 ‘규제개혁 119센터’, ‘규제신고 전용전화 (031-8045-2119)’, ‘기업 SOS시스템’ 등을 운영해 기업에로서항 발굴과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필은 시장은 “이 평가는 시의 각종 규제개혁 노력이 기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결과”라며 “앞으로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

반월산단 정밀화학 경쟁력

일괄적 업종제한 규제 완화

민관추진단 과제 111건 선정

경우 화학업종이라도 계획 관리지역 내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에 걸림돌이 돼 왔던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반월산업단지 내 일괄적 사전 입주업종 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등 정밀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 1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월산업단지에 대한 업종별 일괄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생산과정에서 취급하는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입주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20여개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경우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등록기간도 단축하고, 실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없을

이들 과제는 경영 프로세스별로 ▲공장 설립 인허가 관련 15건 ▲공장 건축 준공 관련 13건 ▲원료 구입 및 수입 관련 5건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관련 71건 ▲출하·판매 관련 7건 등이다.

한편 추진단은 4100개 정밀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이들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날 말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확정된 과제는 3개월 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군포시 교육특구사업 4년 연장

예산 11억4000만원 증액

운영, 청소년 보호(교육복지) 사업 등이 포함된다.

군포시의 청소년교육특구사업이 향후 4년 기간 연장과 함께 예산도 11억4000만원이 증액된다.

시는 중소기업청이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사업 기간을 4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정됐던 청소년교육특구 기간이 2018년까지 늘었다. 또 지원 사업비도 당초 382억8000만원에서 394억2000만원으로 11억4000만원 증액 편성됐다.

학교 낯은시설 현대화 지원, 군포스마트 에듀스터디 운영, 청소년교육특구 책과 함께 만나다, 대한민국 책의 수도 책 읽는 군포 등 8개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여기에 배우고 즐기는 청소년 문화에 술과학도시 조성, 청소년 전용 카페(Teen)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계절별 캠프

시는 2005년 12월 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된 이후 청소년교육지원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군포사랑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외국어 교육의 질적 강화, 청소년 전용공간 ‘Teen터’ 조성, 학교 여학생 시설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과 청소년 재능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교육부로부터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았으며, 산하 기관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김영권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군포는 최초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통해 책의 도시로 인정받은 만큼 공부만이 아니라 독서와 문화예술 영역까지 발전시키는 청소년교육특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광주시 경로당 화재 인명피해 안전망 허술

261곳 중 41%만 화재보험

시 “상반기 가입완료 홍보”

광주시 지역 아파트와 마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261개소의 경로당 중 41%인 107개소만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

정망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경로당이 2011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된 것과 관련, 시가 지난해 말 ‘사회복지사업법’ 상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이다.

경로당의 화재보험 가입을 저조는 중

전까지 적용했던 노인복지법에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경로당 절반 이상이 화재보험 미가입 시설로 나타나자 각 경로당에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홍보전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올해 1·2분기 안에 화재

보험 미가입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상반기 안에 전체 경로당이 보험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역시 상당수 경로당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지난 16일 시에 적극적인 홍보 및 보험가입을 협조 공문을 보냈다.

현재 광주시 261개소 경로당에는 1만205명의 노인들이 회원으로 등록,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장기 기자 50unki@incheonilbo.com

대진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교육부 신규인증 대학 선정

대진대학교가 교육부의 ‘2014년 학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신규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평가는 2011년부터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

뢰도를 높이고, 유학생의 모범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뒤 엄격한 평가를 통해 매년 선정해 왔다.

이렇게 도입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신규 37개교 등 83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포천=김성민 기자 swkim@incheonilbo.com

인천 최저가 1평당 1만원부터 물류창고·공장 임대

1평 1만원

인천 서구 마전동 택지개발지구 검단물류단지 (검단사거리 3분)

건물 16,500m² (5,000평) (1·2층)
100평~1,500평 평수 다양
건물 내외부 작업공간 충분

전력충분, 화물승강기
직원전용식당, 방범시스템

전체임대, 분할임대 상담환영
☎ 직거래 010-7730-8511
010-8205-0821

대동건축
(상가, 주택전문)
(3.3㎡ 당 240만원)
(아파트 인테리어전문)
(주택수리전문)

▶ 설계·신축공사·증축공사 ◀
▶ 방수공사전문·용도변경 ◀
▶ 원룸신축전문·공장수리 ◀
▶ 공업사샷시전문 ◀

※ 견적상당, 전화상당환영 ※

T.(032)766-1266, F.766-3666
H.P.010-4688-4551(대표 박영기)
인천시 동구 금곡동 54-80(동구청정문앞)

☆ 공장·창고, 내대지 상가임대 매매 접수 받습니다 ☆

B2B공인중개사사무소

비투비공인중개사사무소 전속물건 공개매각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현재 철강회사 7,050.6㎡ (구2,133평) 매매가 88억원	인천 서구 왕길동 인천 2호선 오류역 200m 6차선 대로변 5,584㎡ (구1,690평) 토목공사완료, 1층 근생, 제조장, 허가득, 비용완납 평당 200만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추계리 양지 IC 4km 공장허가득, 비용완납, 토목공사완료 10,962㎡ (구3,316평) 평당 50만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해안도로변 내대지 4,959㎡ (구1,500평) 평당 250만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신현리 공장허가득, 토목공사완료, 비용완납 4,295㎡ (구1,299평) 평당90만원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향동7가 공장창고매매 평수다양 (60평, 100평, 200평, 300평, 500평, 1,000평, 3,000평)

문의전화 : 032-859-894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05-4번지 대표공인중개사 조수연

구도심학교 교육복지사 필요하다

기고



조민호

전 인천중구지역사회복지협회의 공동위원장

교육부는 2003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 문화, 복지의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취약 아동 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해왔다.

이 사업은 주요 영역을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으로 구분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정된 학교에 교육복지사 1명이 상주, 학교 간,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를 추진하고 학생들을 위한 다각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사는 학교폭력,

왕따 등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교사가 미처 신경 쓸 수 없는 문제들을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문제로 인식,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한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복지사가 인천 중·동구 일부학교에서는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중·동구 등 인천지역 구도심권 학교들은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신도시 개발 붐 등으로 매년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빈 교실이 넘쳐나고 지역 간 학교환경 및 교육격차 등도 심화, 학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들 학교 대부분이 구도심에 있다는 점이다. 공동화현상이 심화되면 나타나는 교육여건 문제와 기회균등 문제는 교육격차와 사회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교육혁신지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이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 순으로 교육복지사를 배치한다는 형평성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균등한 교육발전과 학생복지를 위해서 인천시교육청은 구도심 학교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들 지역에 특혜와 차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형평성 논리는 소규모 학교 및 구도심지역을 배려하지 않고 있고 구도심 지역 등에 대한 기존 및 관련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기준으로 할 때, 중구지역은 연안초등학교, 신흥여자중학교가 교육복지사가 미 배치되며, 동구지역은 서림초등학교, 청영초등학교가 미 배치된다. 문제는 시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사업 해지 및 교육복지사 배치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하지 않고 있어 교육복지사가 사제관리하고 있는 학생 및 가정, 지역연계사업, 상담 지원 등 종결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교사에게 업무 인수인계 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해당학교 학부모들은 현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현 시교육청의 계획으로 진행될 시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이다. 교사들의 업무과중도 이어질 것이다. 결국 학교 규모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이 같은 조치로 구도심의 학교에서 교육복지사가 사라질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제는 구도심 특색을 살린 혁신학교 운영과 함께 구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따라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기까지 기존에 배치된 학교의 교육복지사는 지속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자치현장



김성수

인천시 도시국장

‘임지규제최소구역’에 거는 기대

중·고등학교 시절 무더운 여름이면 어머니는 시원한 미숫가루를 만들어 주시려고 양푼에 물을 담아 냉장고에 얼려 놓으시곤 하셨다. 얼음이 팡팡 얼어있는 양푼을 냉장고에서 꺼내서서 물로 양푼 주위를 흐르게 해서 양푼과 얼음을 분리시키고 망치나 송곳이 아닌 작은 바늘을 이용해 얼음을 깨셨다. 어릴적의 것 같지만 얼음은 이내 갈라지고 말아놓았던 기억이 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개발 및 정비 사업에도 작지만 효과적인 바늘 같은 역할을 할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올해 1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임지규제최소구역’ 제도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고속성장 시대와 달리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이 정제되고 도시화가 성숙 및 노후 단계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는 기존 도시공간에 대한 정비 및 재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지역별 특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것이 지역 경쟁력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 문화, 관광 등 분야 간 경계가 사라지고,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창조적 인재가 모여 소통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도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할 때이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도 도시공간을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현재의 용도지역 제도의 한계에서 벗어나 기능 간 융·복합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이용규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인 하나로 임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하였고, 세부수립 기준 등에 관한 지침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임지규제최소구역’은 터미널, 역사 등 도시 내 거점 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복합된

지역으로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으로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해야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와 주택건설기준, 주차장 확보기준 등도 추가 완화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정비사업구역 등과 중첩 지정이 가능하고, 거점시설의 단일 부지나 관광특구에도 지정이 가능하여 인천시의 여러 현안 사업과의 연계성이 충분히 높다.

이에 우리시는 임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역세권 등 지역 거점역할 수행시설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 루인시티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에 대한 컨설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현재 13개소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다.

2018년부터는 임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권한이 인천시로 이관됨에 따라 적정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선행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임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되면 도심재생의 대표사례인 일본의 ‘루트키텔스’,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사례인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처럼 주거시설과 호텔, 병원, 백화점 등 복합단지가 입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침체된 경제 여건 등으로 답보상태인 각종 정비·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명소를 탄생시킴으로써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자본 투자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해 도시경쟁력 제고, 나아가 고용창출과 관광산업증진으로 이어지는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내 생각엔



이원창

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노인 성범죄 대처 시급

이 지금은 박카스 할머니라고 불린다고 한다. 성육에는 정년이 없다는 말을 증명이나 하고 있는 듯 말이다.

이와 반대로 노인의 성육과는 반대의 즉 노인을 향한, 성육을 노인성 애증(gerontophilia)이라고 한다. 소아성애증(pedophilia)과 같이 병적인 증상으로 그 대상이 소아인지 노인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정신병적인 문제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가방시신사건’의 경우에도 50대 남성

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70대 할머니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가 할머니가 저항하자 할머니를 살인하고 그 시신까지 유기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과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살인까지 한 것이다.

노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던 범인이 할머니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하면서 또 다른 범행까지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노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더욱이 위험한 것은 대부분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고 그 피해가 성범죄 뿐 아니라 강도나

살인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 노인들 중 실제 신고를 하는 경우는 5%미만이라고 한다.

실제는 더 많은 피해가 있지만, 노인들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관계기관에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예방 프로그램등을 실시하고 독거 노인들 그 중에서도 할머니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그냥 노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외교 논조는 인천일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인천일보

www.incheonilbo.com

400-034 인천광역시 중구 안중로 226(영동4가 18-1)
442-834 수원시 팔달구 장수대로 507번길 5(창수동 2층 강서문사)

회장 **김정섭**

발행·편집인 **박길상**

주필 **조우성**

편집국장 **백종환**

대표전화 032-4520-114 경기 031-232-2288

광고전수 032-4520-151 구독신청 032-4520-127

1988년 4월 25일 기·49호 등록 / 인천일보사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0,000원/한부 500원

신간소개

이야기 京畿 600년

경기는 명당이다

명당(明堂)은 없다. 그러나 필요하다.

명당은 마음속에 있으며,

찾아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할 어떤 곳이다.

경기도는 근본의 땅(根本之地)이다

2014년은 ‘경기도’라고 부른 지 600년이 되는 해다. 또 2018년이면 ‘경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지 1000년이 된다.

『이야기 京畿 600년, 경기는 명당(明堂)이다』는 2014년 경기도 600년을 맞아 출간되었다.

언제부터 ‘경기’였을까?

“언제부터 ‘경기’라고 불렸을까?”

“경기 출신의 역사적 여성인물은 누가 있을까?”

“경기도의 문화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 고장 경기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책이다. 경기도의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다.

〈경기도 600년〉의 대서사시!



현직 기자의 생생한 현장 취재 이야기!

경기도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역사·문화 원형을 재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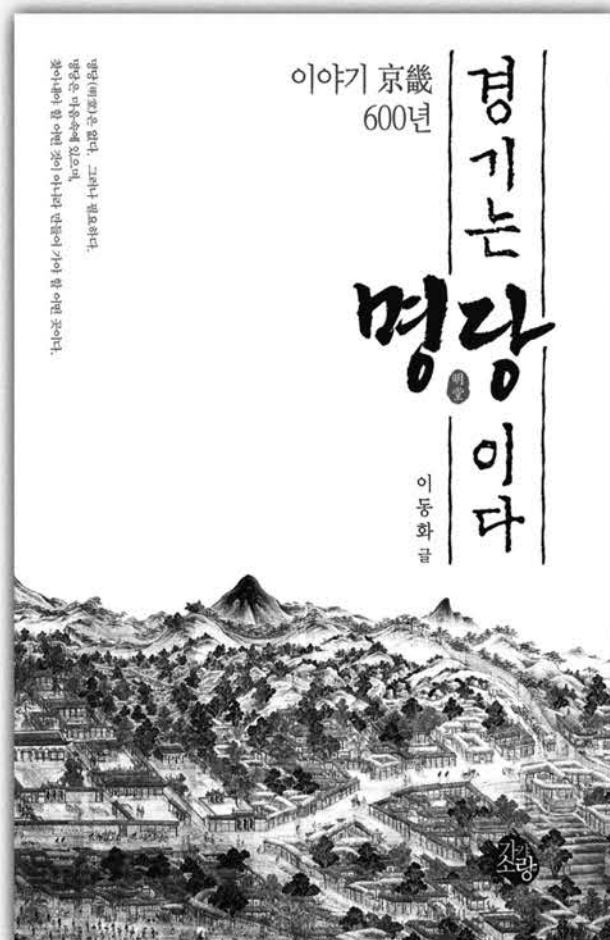
경기 출신 인물/경기 종가/사통팔달 경기 옛길/ 8일 간의 화성 행차/경기 먹거리/경기 명당/조선왕릉/생태계의 보고 DMZ/경기 문화상징/경기 경관/종교의 성지/ 경기도/농업의 중심/ 경기/경기 산업의 현주소/다문화 해방구 '원곡동 아리랑' 등.

경기의 뿌리에서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경기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저자소개

1960년 전라남도 작은 섬 소안도에서 태어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시작한 일이 기자였고 아직도 기자다. 인천일보 문화부 기자 때 ‘경기도 600년, 천년을 내다본다’라는 제목의 긴 기획·연재를 했다. <이야기 京畿 600년, 경기는 명당(明堂)이다>는 그 때 취재물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경기도의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가 대세다. 그래서 ‘중이는 죽었다’고 말한다. 그만큼 다매체 시대를 맞아 치열한 콘텐츠 경쟁력을 요구한다. 시대정신이 깃든 역사·문화 이야기는 좋은 소재일 것이다. 필자는 나이 오십 살을 넘긴 베이비붐 세대다. ‘명퇴’라는 시대의 흐름에 흔들릴 때에도 나는 <경기 천년>의 옛것거리를 찾아 지금도 ‘오늘’을 기록하고 있다. ahwa21@naver.com



이동화 지음/가카소랑/신국판/반양장/328페이지/컬러/정가 20,000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87-1, 이화빌딩 6층 (주)가카소랑 02-336-9933

■ 논설실에서



김진국
논설실장

예술이 경제학의 범주로 들어오기 시작한 때는 1960년대 중반 부터이다. 미리학자 앨빈 토플러가 <문화소비자>(The Culture Consumers)를 펴내면서 ‘문화경제학’(culture economics)란 단어가 학술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는 대중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현상을 보며 문화를 하나의 경제현상으로 파악, ‘문화소비’의 개념을 생각해 냈다.

문화경제학은 그러나 이미 19세기 후반 등장한 개념이었다. 19세기 후반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과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는 “문화예술의 창조적 작업과 그 결과물인 작품을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예술을 단순히 정신적 유희로 보지 않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이었다. 이전까지 예술은 그저 고급 향유자들을 위한 고상한 분야로 인식됐던 게 사실이었다. 예술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소홀히 인식했다는 얘기다.

예술, 경제학의 관점으로 봐야

현대 사회에서 예술활동은 많은 부분,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다. 많은 연출자들이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으며, 영화는 블록버스터로 기록되기 위해 기존에 흥행됐던 영화의 문법을 따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같은 상업영화를 견제하기 위해 ‘예술영화의 중흥’을 부르짖으며 개최되는 이벤트가 ‘칸영화제’와 같은 것들이

전문 예술경영인이 필요한 이유

다. 하지만 칸영화제조차 ‘필름마켓’을 통해 전세계의 영화를 유통하고 있으므로 비상업적 영화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선 예술 중에서도 비인기 분야라 할 수 있는 연극과 국악조차도 상업성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제작한다. ‘난타’처럼 연극에 ‘넌버벌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새롭게 개척하거나, ‘舞鳳’(무풍) 같이 농악에 한국무용이나 재담 등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삽입해 ‘퓨전’의 모습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상업예술이 판치다보니 비인기종목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인기는 많지 않으나 예술적 가치가 있거나 보존해야 하는 것들은 ‘국립’이나 ‘시립’이란 이름으로 운영된다. 창을 하는 ‘국립창극단’이 그렇고 ‘인천시립예술단’이 그렇다.

전통예술도 즐거움 추구할

인천시립예술단의 경우 교향악단, 합창단, 극단, 무용단 등 모두 네 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나같이 동서양의 전통적인 예술장르에 속하는 것들이다. 굳이 이 전통적인 4개의 예술장르를 시립예술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예술장르지만 관의 지원 없이는 자발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4개의 예술단 가운데 3개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년, 이직, 폭행사건 등 이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3개 예술단 모두 감독이 공석인 상태다. 선장이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 예술적 개성과 고집이 강한 예술인들의 경우 그럴 가능성은 배가된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예술단 운영비를 내고 있는 인천시민들이다.

예산이 적절하게 책정된 상태에서 좋은 예술작품은 구성원들의 열정과 연습에 비례한다. 수장을 중심으로 단원들이 좋은 작품을 위해 고민하고 연습해도 부족한 터인데 3개 시립예술단 수장의 자리

가 공석이 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적임자를 찾지 못한 채 ‘붕’ 떠 있는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문화시설 전문운영 시급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역시 마찬가지다. 무형문화재는 정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 보호하지 않으면 맥이 끊길 가능성이 높은 소중한 우리문화를 지정하는 제도다. 이때문에 수백억 원을 들여 무형문화재들의 터전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관장도 없이 운영하는 바람에 무형문화재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곳에선 공연장 시설문제, 무대 전문가 부재의 문제에서부터 임주한 무형문화재들의 일부 경비의 자부담문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현안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역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무형문화재를 위해 세금을 내는 인천시민들일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겨두는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이 마구간을 뛰쳐나가면 망아지가 더 잘 한다’고 차석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전국공모를 하면 분명히 몇 배수로 문을 두드릴 것이다. 혹시 “예산이 없어서”라고 말한다면 아예 운영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 외국에서도 자신들의 전통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을 일종의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거나 ‘남들이 다 하니깐’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잘못된 것이다. 예술은 아름다우며, 때론 피곤한 영혼을 위무하여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리하여 인간의 삶을 더 유익미하게 만들어주는 ‘정신적 비타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립예술단도,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도 하루빨리 수장을 찾는 것과 함께 ‘전문예술경영’의 개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사설

해수부 장관 특정지역 쏠림 경계한다

박근혜 정부 제3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유기준(56)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장관 청문회 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유기준 의원이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박근혜 정부 1~3대 해수부 장관 모두 부산·경남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해양정책이 부산에 집중되고 부산 스스로 해양수도로 일컫는 판국에 PK출신을 연달아 해수부 장관에 임명할 것을 어느 지역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해양정책의 부산편중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는 이유다. 역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이전 16명 가운데 부산경남출신이 11명에 이른다. 70%에 달하는 수치다. 충남·북 출신이 2명, 서울, 광주, 강원이 각 1명씩이었다. 인천출신은 단 1명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더욱 부산경남 편중이 더욱 심화됐다. 초대 윤진숙 장관을 포함해 장관 3명 모두 부산경남 출신이고 심지어 차관마저도 부산출신으로 채워졌다. 국가의 균형적인 해양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잇따라 PK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정부의 투포트 정책으로 서해안 해양자원을

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는 처사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선으로 대륙과의 연결이 차단된 사실상 섬나라와 다를 바 없다. 해양으로의 진출은 따라서 국가의 발전과 국운융성을 위한 운명적 활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수부가 해체되고 국토해양부로 흡수통합했을 때 인천시민 모두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해수부 부활을 이끌어 냈다. 역대 해수부 장관이 대부분 비전문가들로 채워진 것도 모자라 특정지역으로 쏠린다면 대한민국의 해양정책은 후퇴하고 말 것이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국제공항, 국제항만을 중심에 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물류중심의 국제도시로 뻗어 나가고 있다. 인천에 항운, 해운, 육운의 기능이 체계적으로 구비돼야 우리나라의 물류가 인천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고,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물류가 인천을 통해 각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다. 해양경찰 해체에 이은 해경본부의 세종 이전과 맞물려 해수부 장관의 PK임명에 대해 인천시민이 우려하는 바를 정치권이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월미은하레일 안전성, 수익성 담보돼야

총 공사비 853억원을 들여 지난 2010년 완공했지만 시험운행때 사고가 발생해 5년간 멈춰있던 ‘월미은하레일’이 기존의 설계를 변형해 개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3일 민간 궤도사업자인 가람스페이스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8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 기존의 것이 아닌 관광용 소형 모노레일로 바꾸어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월미은하레일 차량은 70인승으로 18t 무게였으나 새로운 모노레일은 8인승으로 1.5t에 불과하다.

물론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로와 대피로를 겸한 낙하물 방지시설, 충돌방지 장치, 차량 위치 추적장치 등을 보장하고 차량에 비상용 배터리를 탑재해 정전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1시간 이상 정상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모노레일 운영은 ‘경제성’과 ‘안전성’, 두 가지 점에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기껏 모노레일을 만들었는데도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적자부분을 인천시

가 매년 부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마케팅·홍보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다면 새로운 투자금 190억원마저 날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성’에 관한 문제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참사 등 우리 사회에선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비상상황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통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천재지변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문에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의 결정이 도시의 흥물 내지 애물단지가 될 뻔한 시설물을 활용하겠다는 의지와, 자칫 낭비할 뻔한 수백억원의 혈세를 보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선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월미은하레일을 운영하기 위해선 철저한 수익성 점검과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 월미은하레일이 영원한 애물단지로 남느냐,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아이코너로 자리매김하느냐는 인천시의 준비에 달려 있다.



조우성의 미추홀

<1289>



설날, ‘정비록’을 다시 꺼내든다. 조선 선조 때의 중신 유성룡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 참절비절했던 왜란을 기록한 것을 1647년에 펴낸 전기(戰記)인데, 하 수상한 동북아의 정세와 국내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찌 처신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재독하기로 한 것이다.▶서에는 서문에서 이르기를 “매번 지난 난중(亂中)의 일을 생각하면, 아닌 게 아니라 황송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몸 둘 곳을 알지 못해 왔다.”며 “비록 불 만한 것은 없으나 모두 당시의 사적(事蹟)이라 버릴 수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그 참상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인천 일대는 왜적의 온 부대가 나와 날마다 분탕질을 하고, 더러는 밤을 타 습격해 살아남은 백성들이 흉작의 창칼에 다 죽어갈 형편입니다. 신이 용렬한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한 지방을 지키며 적이 우글거리는 속에 방황하자니 눈물만 나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경기좌도 감찰사 성영이 선조 26년 3월 24일 눈물로써 임금에게 아뢰는 대목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천부사 김민선

인천을 지킨 백성들

(金敏善)의 후임 김찬선(金鑽先)은 어전(魚鰐)을 세워 일신의 사육을 채우고, 거리낌 없이 수탈을 일삼아 백성들이 그를 파직해 줄 것을 청하고 있었다.▶실록 선조 25년 8월 7일자에는 무신 김경로가 “인천의 적은 유옥(兪沃)과 접전하였는데 인천 군사 42명이 패하여 죽자, 인천 백성들이 서로 울면서 “수령(守令)이 실책하더니 지금은 또 패배하였다”며 부사의 부패한 정사와 장수들의 졸전에 울분을 토했다고 전한다. ▶무신 이정암은 선조 29년 11월 13일 “인천 산성과 수원 독성에서는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들어가 지켜 적이 감히 침공하여 함락하지 못하였다.”고 아뢰었다. 그간 승전의 주인공이라 칭송해 오던 김민선에 대한 전승과 추증에 관한 기록은 실록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왜적에 맞서 싸워 인천을 지켜낸 것이 인천 백성들이었음을 실록은 분명히 밝혀 후세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 설날 아침, 우리가 그 후예인 것을 커다란 지역적 자긍심으로서 되새기게 된다. ‘정비(懲毖)’하며, 내일을 굳건히 모색해야겠다. /주필

주택·상가·공장
신축, 증축

- 완벽시공
- 원가절감
- 하자보증

주택:평당 250~270만원
상가:평당 220~240만원
공장:평당 130~150만원

■주택·상가 건축

외부구조물:〈철근·콘크리트〉외장마감재
내부마감:이파트형 고급내장마감

■공장·창고 건축

철구조물+불연재판설 (높은층고+공기단축+완벽방수)

☆공장 및 주택, 증축 및 보수공사☆

내부구조 변경공사, 인테리어공사,
토목공사, 외벽 및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德壽建設

인천시 동구 송림동 67-11

T.032)764-0518 / 휴대폰:010-5242-6533

인천 소형공장 임대

- 소재지 : 가좌 I·C 주변
- 인천지하철 2호선 역세권(개통예정)

● 면적

1층 264㎡(80평) 1층 331㎡(100평)
2층 264㎡(80평) 2층 331㎡(100평)

● 기반시설, 혜택

- 화물엘리베이터(2t) 시설 10대
- 주차장 : 216대 주차시설
- 동력 : 제한없이 사용
- 1층, 2층 함께 임대 가능(임대료 할인)
- 평수 다량 보유
- 즉시 입주

임대 032)772-1680
문의 032)861-2900

현대건강원 농장직영

각종엑기스 가공 및 건강식품 판매

- 흑염소, 홍삼, 장어, 배
- 붕어, 돼지감자, 도라지, 칩
- 포도, 호박, 다슬기

※ 국가유공자 우대

※ 연말연시 업체 지인분들 선물용으로 최고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02-8번길 1층

TEL : (032)467-5855

FAX : (032)473-0904

H·P : 010-4824-6197

대한공인중개사

인천시 동구 송림동286 송림공구상가A-217(대포인출점) 소 010-5352-2777

- 경서동 주택가인근 토지 422평
8M도로접 급매가 3억 4천만원
- 박촌동 20M도로변 토지
850평(전, 답)450평(전)
진입로있음, 도로와의 접합부 110M
- 사무실 임대
실평수 20평 보증금 800만원 / 35만원속직실, 샤워실,
단독화장실 <에어컨 등 시공200만 조정가>
- 아파트형 공장 (분양광수 146평 & 95평)
매매가 4억5천만원 / 순투자수익률 15%이상
(1.5억 투자시, 개별매매가능)
- 대로변 아울렛매장자리 100 ~ 200평
- 단독공장임대
대지430py, 건물합계350py 보8, 500만/월850만원
1층150평높이10M, 호이스트2, 8T, 동력200KW
- 서구 대형 창고임대 보10억/월7,300만원
대지:4,500평 건물:2,000평
사무실:300평 높이:11M, 교통편리
대형차진출입 용이 물류창고추천
- 원창동 사출공장 임대 100평 + 창고20평
호이스트 4기, 사출라인(냉각판, 배관)사용가
- 상업지역 여인숙 매매가 1억9천만원
객실13개 주인추가가능 현재영업중
2015년 지하철개통 예정지역(역세권)



안산대학교 제40회 학위수여식

안산대학교(총장 김주성)는 교내 강석봉기념관에서 '제40회 학위수여식'을 갖고 25개 학과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 158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학위수여식은 심영석 교무처장의 사회로 신부식 산학협력처장의 학사보고, 김주성 총장의 학위증 수여, 영국치체스터대학 복수학위증 수여, 임승룡 이사장 및 김주성 총장의 지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체 수석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이사장상은 임상병리와 유아예, 세무회계과 노현수, IT응용보안과 김태연 졸업생이 차지했으며 학과별 수석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총장상은 간호학과 이선희 졸업생 외 26명이 수상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광주시장, 설 비상근무 기관 위문

조역동 광주시장은 최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휴일도 잊은 채 특별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비상근무 기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광주경찰서를 찾은 조 시장은 치안상황실에서 교통소통대책, 연휴기간 치안대비 상황을 청취했으며, 소방안전대책과 근무상황을 살피는 등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는 경찰 및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광주=정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의왕시 시민 자전거교육 확대 운영

의왕시는 다음달부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와 시민 자전거교육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의왕역 등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일정에 맞춰 수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왕=김영복 기자 ybkim@incheonilbo.com



군포지역 북이탈주민 설맞이 나눔행사

군포경찰서(서장 오문교)는 최근 군포제일교회(권태진 목사)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격려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통한 '설맞이 나눔행사'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포제일교회와 경찰서간 협업을 맺고, 오문교 서장과 권태진 목사, 보안계 직원들이 탈북민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떡과 종합선물세트 등 8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권 목사는 탈북민 이모(37·여)씨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비 지원을 약속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포커스 과천시



최근 라오스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과천시 지역 청소년들을 비롯해 방비영 마을 아이들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천시

‘이웃나라 새싹’ 나눔햇살 비추다

청소년 해외봉사단, 라오스 어린이에 전통놀이 교육·생필품 기부

과천시는 지역 청소년 15명과 함께 최근 라오스에서 아름다운 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현지 학생들에게 교육할 미술·음악·체육·전통놀이 등을 준비하고 다양한 단체와 시민들로부터 기부 받은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봉사정신을 익히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 대상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4시간 떨어진 방비영의 시골 마을에 위치한 유아초등학교 145명이다.

이곳에서 봉사자들은 페이스페인팅, 동물가면 만들기, 겨울 만들기 등 미술 활동 9종과 수건달리기, 딱지치기 등 9

종의 전통놀이를 교육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단체줄넘기와 림보, 달리기 등 6종목에 걸친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맨발로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운동장의 돌을 골라내는 작업도 병행했다.

이밖에 각 교실에 시계를 달아주고 의약품과 가방, 학용품 등을 전달했으며, 마지막 날엔 효문화센터에 옷과 생필품 등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영은(과천고·2학년)양은 “과천시가 운영하는 1기 청소년 해외봉사단 단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매우 영광스럽고,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라오스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혜원(과천고·3학년)양은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는 등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라오스 아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며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경험을 나눠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수련관은 올 여름방학엔 몽골에서 청소년 해외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경북대 IT인재 취업보장 업무협약

경북대학교(총장 전지용)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대표들과 본교 IT 재학생들의 취업보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지용 총장은 창조형 IT인재들의 원활한 취업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진출을 위해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인키움 회의실에서 G-밸리 다자간 취업보장형 산학협력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맺은 업체는 △고려아카데미컨설팅(원격교육, 집체교육, 디지털콘텐츠제작) △㈜브레인넷(전산시스템 분석 및 설계) △㈜제이플렉스(온라인 취업포털사이트 운영 및 홈페이지 제작) △㈜이제인텔(IT장비 렌탈) △트리미스솔루션즈(주)민자지센터통합솔루션, 서버, 스토리지 등) 등 총 5개 업체다.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



평택시장 경로당 덕담·화합의 시간

공재광 평택시장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지역내 경로당을 방문해 덕담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공 시장은 지난 17일부터 비전2동 한빛아파트경로당을 시작으로 신기·우성 아파트, 숙성2리, 동신2차아파트, 장수리, 우미2차아파트, 송복시장, 신리 경로당 등 남부·서부·북부 권역별로 모두 9개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현안과 경로당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할 뿐 아니라 노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직접 대화하며, 덕담을 나누는 등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



경기도의회 설 명절 소외이웃 격려

경기도의회 강득구(새정치·안양2) 의장은 설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강 의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7일 ‘양지의 집’, ‘명륜보육원’, ‘좋은집’,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했다.

이날 김도현(새정치·군포1) 의원과 윤재우(새정치·의왕2) 의원도 함께 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어린이 보호구역 합동 현장 점검회의

과천경찰서(서장 최승렬)는 최근 법규준수율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 All Safe-Up’ 추진계획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점검 기간 중 청계초등학교 앞에서 유관기관(시청 건설과, 교통과, 산업경제과)합동 현장 점검회의를 가졌다.

과천시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을 위해 청계초등학교 김경관 교감이 참석,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확대, 안전펜스 및 표지판 상태점검, 진입자량 유턴방안 강구 등에 대해 협의했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시민 목소리 경청...市 주요현안 적극반영

이교범 하남시장, 주민과의 대화...182건 민원·건의사항 접수

하남시는 최근 12개 동에서 열린 이교범 하남시장의 주민과 대화에서 182건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원은 도로, 건설, 교통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개선이 주를 이루었으며, 미사강변도시 입주민은 지구내 대중교통의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를 요구했다.

이번 이 시장의 주민과 대화 기간에는 총 1192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지난 2014년 940명에 132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건의사항을 제시한 동은 춘궁동으로 3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 초이동(25건), 신장2동(18건), 덕풍3동(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올해 시에서 추진되는 지하철 연장사업, 하남유니온스퀘어, 지역현안 1·2지구 도시개발사업, 종합대학 유치 등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시정운영계획 프레젠테이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하남시는 이번에 제시된 건의사항은 담당부서별로 분류해



지난 13일 각 부서로 통보했으며 내달 4일까지 처리계획을 취합해 9일 건의자에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하남=정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골든타임 확보...소중한 생명구한 ‘번개 투캅스’

안양동안경찰 김훈식 경위·오성록 경사, 운전중 저혈당 쇼크환자 신속 구조

안양동안경찰서 경찰관들이 운전 중 쇼크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신속하게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안양동안경찰서 비산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김훈식(오른쪽) 경위와 오성록 경사.

두 경찰관은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동안구 비산3동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았다.

이에 두 경찰관은 즉시 사고현장으로 출동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진술을 받고 가해차량에 다가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운전자를 발견했다.

이들은 차량 내부와 운전자의 소지품을 수색한 결과 노모(63)씨가 저혈당으로 병원에서 치료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노씨의 상태가 위중해 구급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순찰차에 태워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신속하게 후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김 경위는 “조금만 늦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운전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

仁&人

김기완 인천지식재산센터장

개인·기업 ‘특허권 보호’ 환경 구축

국내특허·실용신안 ‘지원금 상향’ 조정

IP 창조존 개소...생활밀착형 공간 마련

“그동안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IP) 경영이 처음인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데 공을 들였다면, 올해는 기업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까지 지식재산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기완(사진) 인천지식재산센터장(인천상공회의소)은 올해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의 외연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핵심이 기능별로 분류하던 기존 사업을 성장모델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지역내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

축하는데 있었다면, 이제는 구축한 생태계를 안착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김기완 센터장은 “센터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식재산권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각종 방법들을 고민해 왔다”며 “올해 내놓는 많은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까지 총 188억여원의 예산으로 4085개 기업에 1만5640건을 지원했고, 올해는 34억원 예산으로 352개 기업에 1140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완 센터장은 “사업 효율성을 위해 올해 기존 건당 지원금액부터 상향 조정해 적극적인 제정 개선에 나섰다”며 “국내특허는 건당 지원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랐고, 실용신안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 하반기 인천상에 마련되는 ‘IP 창조존’의 개소다. 김기완 센터장은 “IP 창조존은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지식재산권을 생활 밀착형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공간”이라며 “창작교실과 특허연구실, 창업보육실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



/김원진 기자 kw7991@incheonilbo.com

해 교육부터 3D프린터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P 창조존은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 및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앞으로 영화나 음악 등 저작권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시키는 게 목표”라며 “IP 문화 조성을 위한 ‘1세대 특허 갖기 운동’ 등을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III 프로필 III

공안요직 두루 역임 ‘대표 공안통’



안병익 인천지검 1차장

인천지검 1차장에 안병익(50·사진) 차장진주지정장이 임명됐다.

안 차장은 강원 형성 출신으로 원주교과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2기로 울산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검찰1과장,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공안 요직을 두루 거쳐 검찰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통한다.

/박범준 기자 parkb2@incheonilbo.com

지식지능범죄 수사 프로페셔널



김한수 인천지검 2차장

인천지검 2차장에 김한수(48·사진) 법무대변인이 발탁됐다.

김 차장은 서울 숭실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4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그는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시절 씨앤케이(CNK) 인턴내선날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해결하며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2@incheonilbo.com

인사

인천지검

◆ 전보

△1차장 안병익 △2차장 김한수 △형사1부장 이성희 △형사2부장 최정숙 △형사3부장 박승환 △형사4부장 최영은 △형사5부장 박흥준 △공판송무부장 권광현 △공안부장 최성필 △특수부장 변철형 △강력부장 이형관 △외사부장 최용훈 △부장 오정돈(인천광역시 파견) △부부장 신명호 김종오 이진호 이재영(주내달달랜드사관 파견) 김용규 △검사 원희정 박주현 이영준 김경진 주민철 유상민(감사원 파견) 이영창 조만래(미래창조과학부 파견) 김동희 김형원 정혁준 김태훈 조영성 박종선 박진명 방지형 김성태 김소현 김형섭 임하나 김지혜 박경화 문정신 고명아 원세경 김현경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승영 △서울고검 검사 최상훈 박용호 이광민 조인형

◆부천지청

△지청장 김창희 △차장 김훈 △부장 이종환 박영수 박종근 △부부장 이상운김성훈 △검사 공태구 정광수 조지은 한상훈 강경영 한지혁 서민주 단정려 김연주 김지연 김경선

‘귀성길 안내 열정’ 연휴도 잇다

TBN, 설 명절 하루 20시간 특별방송

FM 100.5MHz TBN 인천교통방송(본부장 황성수)은 민족의 최대 명절 설 연휴를 맞아 지난 17일 낮 12시부터 23일 새벽 2시까지 하루 20시간 설날 교통특별방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방송에서는 상습 정체구간인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국도의 교통요지에 통신원과 리포터, 중계차를 배치하고 서울DMB, 인천 등 전국 10개 방송국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신속, 정확한 교통 상황과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귀성·귀경길에 필요한 안전운전 팀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방송을 진행했다.

설날 교통특별방송 첫날인 17일에는 영동고속도로 군자요금소에 중계차를 배치,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성묘객이 몰리는 설날 당일에는 공원묘지주변 교통상황을 전달했다.



/김정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이와 함께 스튜디오에서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다양한 특집 코너를 통해 고향을 오가는 청취자들에게 명절 분위기와 흥을 돋우는 시간을 마련하고 트위터(TBNNineon)를 통해서도 고속도로 구간별 예상소요시간과 돌발정보를 실시간 교통상황을 CCTV 화면으로 제공했다.

아울러 지난해 개국한 주파수 105.5MHz를 통해 서해5도 섬지역에도 귀성·귀경길 교통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 사각지대 ‘통 큰 백미’ 쾌척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이규호)는 지난 17일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운동 후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검단5동, 검암경서동, 김포시 양촌읍 지역법정 저소득 가구를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통별 2-3세대 추천자를 찾아 쌀 20kg 705포, 상품권 등을(6000만원 상당 물품)직접 전달했다.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남부췌, 기쁨의 집 방문·봉사 활동

중증 장애인 시설 ‘온정의 손길’

남부경찰서(서장 안영수)는 지난 16일 지역내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 ‘기쁨의 집’을 방문해 봉사 활동을 펼쳤다.

설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봉사 활동에는 안영수 서장도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안 서장과 직원들은 이날 시설 내·외부 정리 정돈과 청소를 도와주고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점검했다. 또 생필품과 라면 등 정성껏 준비한 위문품을 시설 측에 전달했다.

안 서장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동참하는 사랑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겠다”며 “더불어 주민들이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2@incheonilbo.com

사랑의열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호)는 지난 16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내 118개 소규모복지기관과 무료급식소에 5942만4000원을 지원했다.

명절차려상, 명절특식비, 민속놀이 지원 사업을 위해 전달된 지원비를 통해 홀몸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은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냈다.

조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홀몸 어르신께 따뜻한 떡국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다가오는 봄에도 이웃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전국동시조합장 공명선거 분위기 홍보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병훈)는 설 연휴기간 강화읍 풍물시장에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강화군의회의원 보궐선거(나선거구)의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농협중앙회에서 위촉한 ‘강화 서포터즈’와 함께 진행한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공명선거 안내 리플릿 및 홍보용품(물티슈)을 배부하고 가두 행진 등 다양한 퍼포먼스도 전개했다.

/왕수봉 기자 king@incheonilbo.com



남구 4개 의약단체 소외층 돕기 성금

남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 16일 성금 4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4개 의약단체는 지난해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400만원 상당의 성금을 마련한 바 있다.

황원준 남구 의사회 회장은 “경기침체로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려울수록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단체들은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관교동 통장자율회 사랑의 라면 전달

남구 관교동 통장자율회(회장 김종달)는 지난 1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라면 60상자를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사랑의 라면은 떡국 판매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통장들은 이날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 라면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종달 회장은 “설 명절에 더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물품으로나마 작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통장자율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2@incheonilbo.com

(주)동진조명
조명기구 도·소매(남부,시공) 오스람·필립스 램프, LED 조명
대표전화 (032)426-2266 석바위 시청방향 50m
인천 남구 주안4동 1542-10(경인로 452)

송익기
생고기전문점 돌, 피로연, 회갑, 단체전문
예약문의 032)887-5555/884-2266

명인꽃게장
1인분 11,000원 연평도 꽃게 전문점
☎(032)751-4433 을왕리 해수욕장 가는길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241번지

고려 최고 문장가, 인천서 ‘일생일대 역작’ 남기다

9. 이규보와 동국이상국집

‘나라가 잘 되고 못됨 민력에 달렸고/ 만민의 살고 죽음 벼 싹에 매였네/ 가을날 옥같은 곡식 일천 창고에 쌓이리니/ 밭흙리는 농민들 오늘의 공을 기록하게나’(비 속에서 농사짓는 사람을 보고 서기에게 써주다)

지난 20일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산림욕장 입구, 거대한 돌비석 하나라 우람하게 솟아 있다. ‘문순공백운이규보선생시비’. 돌비석 받침대에 새겨진 글씨가 고려의 대문호 이규보(1168~1241)를 기리는 시비임을 알려준다. 이규보의 시비가 계양구에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고려 고종6년(1219), 이규보는 지금의 계양 지역을 다스리는 수령으로 부임한다. 그의 나이 52세 때였다. 이규보는 본래 중앙관직인 ‘좌시간’이었으나 지방관의 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계양도호부 부사’란 직책으로 좌천되며 계양으로 오게 된다. 그는 이후 13개월 간 계양에 머무르며 ‘계양 망해지’, ‘만일사’ 등 부평지역의 풍광과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45편의 한시로 남긴다. 이규보가 당시 머물렀던 계산동 산 57의 2 관사 자리인 ‘자오당지’는 계양구 양궁선수단이 훈련하는 장소로 사용 중이기도 하다. 부평구 심정동 국철1호선 ‘백운역’은 ‘백운거사’였던 이규보의 호를 따 지었을 만큼 계양, 부평은 이규보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경기도 여주 출생인 이규보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보였으며 22세때 과거시험(사마시)에 합격했지만 그로부터 10년 뒤에 관직을 얻게 된다. 32세의 이규보는 최충현이 초청한 시회에서 발탁돼 전주의 사록검장서기로 부임한다. 이후 직한림원, 우정언, 우사간 등의 관직을 맡다가 52세 때 계양도호부 부사를 맡았으며 이듬해 최우가 집권하면서 약 10년 간 예부 등의 관청에서 안정된 관직생활을 하며 많은 작품을 쓴다.

그런 그가 강화도에 정착한 시기는 65세 때이다. 1232년 고려왕조가 강화천도를 단행하며 강화도와 하음현(현 하점면)에 거주, ‘산관’으로 재직하며 몽골에 보내는 국서 작성 등을 담당한다. 70세(1237) 때 정2품인 ‘문하시랑평장사’로 관직에서 물러난 백운은 74세(1241)에 별세, 지금의 길상면 진강산 동쪽 언덕에서 잠이 든다. 노년엔 시와 거문고, 술을 좋아해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라고도 불린 이규보의 역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은 그가 눈을 감은 1241년 아들 ‘합’이 53권 13책으로 발행한 시문집이다. 이 책은 1251년 손자 ‘익배’가 교정, 증보해 개간했으

며 현재 전해지는 판본은 영조시대에 복간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국이상국집>은 그가 강화에 들어와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술한 일생일대의 역작이다. 자신을 ‘시마’(詩癡)라고 표현할만큼 글쓰기를 좋아했던 그가 <동국이상국집>과 같은 책을 펴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동국이상국집> 전집 권3에 수록된 ‘동명왕편’은 장편의 민족서사시로 이규보 문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건국 역사를 서사시로 빚어낸 작품이다. 해모수와 유화가 만나는 과정으로부터 주몽의 탄생과 관련한 신화를 통해 고구려의 탄생을 노래하고 있다. 시련을 이기고 고구려를 건국하는 과정과 함께 임금들이 어진 마음과 예의로 나라를 다스려줄 것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고구려의 건국역사를 장구한 서사시로 풀어낸 것은 고려의 민족적 자존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민족의 영웅인 동명왕의 발자취와 생애를 드러냄으로써 고려의 수준 높은 문화와 역사적 정통성, 민족적 우월감을 드러낸 것이다.

<동국이상국집>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역사

를 기록한 김부식의 <삼국사기>(1145)와 일연의 <삼국유사>(1281)의 중간 선상에 놓여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동국이상국집>의 서문은 <구삼국사>(舊三國史·고려 초기,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내기 이전에 삼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란 우리나라 서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 시 속에서 여러가지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전집 권20에 수록된 <국선생전>(龜先生傳)은 술을 의인화해 술과 인간과의 미묘한 관계를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이다. 거북을 의인화한 <청강사자현부전>(淸江使者玄夫傳)에선 어른도 간혹 실수가 있음을 지적하며 매사에 조심하고 삼가할 것을 메시지로 전한다. 이들 ‘가전체문학작품’은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설화와 소설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화군 길상면 길적리 산 115번지 이규보의 묘. 그의 묘는 농로가 끝나는 지점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규보의 초상을 모신 ‘유영각’을 지나 그의 무덤을 향해 비탈진 묘지를 향해 올라간다. 이규보의 묘는 웅미를 길게 낸 원형봉분의 형



강화역사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동국이상국집’.

상을 하고 있다. 호석을 두른 봉분 앞엔 낮은 나와 놀도록 한 ‘훈유석’과 무덤 앞에 평평하게 만든 장대석구 ‘계체석’이 놓여 있다. 강화에 있는 고려무덤에서 나타나는 ‘석수’와 ‘석인’은 비바람에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무덤 양옆의 ‘문인석’은 전형적인 고려무덤의 석조조각이다.

이규보 묘 앞에서 서서 무덤 아래를 내려다 본다. 시와 술, 그리고 거문고를 좋아했다는 삼혹호선생 백운거사의 무덤 위로, 머잖아 파릇파릇한 생명의 잎들이 피어날 것이다.

/글·사진 김진국 기자 freebird@incheonilbo.com



‘백운거사’ 이규보는 경기도 여주 출생으로 65세때인 1232년 강화도에 들어와 124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술과 시, 거문고를 벗하며 명문을 남겼다. 강화군 길상면 길적리 산 115번지 이규보의 묘는 전형적인 고려시대 무덤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규보

문학적 재능 탁월

시·거문고·술 ‘好’

65세 강화도 정착

수많은 작품 저술

동국이상국집

1241년 이규보의 아들 합

53권 13책 시문집 집대성

서사시 동명왕편 등 수록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 산림욕장 입구에 있는 이규보 시비. 이규보는 고려 고종6년인 1219년 지금의 계양 지역을 다스리는 수령으로 부임한 뒤 13개월간 계양지역에 머물며 계양, 부평 지역과 관련한 글 45편을 남겼다.

‘책과 출판의 문화사’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

이슬람교는 성립(610년)한지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지금의 중동은 물론 북아프리카로부터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을 비롯해 스페인을 위시한 유럽까지 점령했다. 이슬람교의 놀라운 전파 속도에 대해 서구 사회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이란 말로 폄하해 왔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문명과 문화가 우월하다고 여긴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이슬람교가 그토록 빨리 전파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당시 이 지역을 통치하던 비잔틴과 페르시아의 가혹한 수탈과 착취에 시달리던 민중들이 이슬람의 평등주의를 환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슬람교의 교리는 어떻게 그처럼 빨리 전파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대략 850여년에 걸쳐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서술한 내용을 결집한 것이고, 비슷한 시대 소아시아 일대부터 인도, 중국에 이르기까지 이슬람과 경쟁했던 마니교는 여러 언어로 경전이 번역되는 것을 장려했다. 그에 비해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꾸

란>의 번역을 엄격히 금지시켰다. <꾸란>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신의 가르침이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전해진 것이므로, 이것을 아랍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은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해설서란 의미에서 ‘타프시르’라 부른다. 종이 이전에 <꾸란>은 암송으로 구전되거나 양피지, 가죽조각, 돌판, 대추야자 잎이나 나무껍질, 낙타의 골편 등에 기록돼 왔다.

탈라스 전투(751년)에서 승리한 이븐 살리흐는 당나라 포로를 가운데 제지기술자가 여러 명 있는 것을 알고 현지인들에게 제지술을 가르치게 했다. 당시만 해도 이슬람 상인들은 중국에서 비단과 함께 종이를 비싸게 수입해야 했지만, 탈라스 전투 이후 6년여가 흐른 757년경이 되자 사마르칸트는 제지업의 중심도시가 됐다. 사마르칸트 종이는 중국의 기술로 만들어 중국 종이와 품질 차이가 거의 없었기에 이른바 ‘서역한지(西域漢紙)’라 불렸다. 사마르칸트 종이의 생산은 단순히 수입 물품 대체 정도의 효과만 거둔 것이 아니었다. 종이와

<꾸란>이 만나면서 구전문학 중심이었던 이슬람문화가 아랍어를 중심으로 한 문자문화으로 전환됐고, 저렴한 가격에 종이가 공급되면 서 더 많은 사람들이 <꾸란>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슬람문명이 세계의 질서를 주도했고 이슬람은 세계무대의 주인공이었다. 이슬람의 황금시대를 이끈 지도자들은 다마스쿠스와 이스탄불 등 곳곳에 제지공장을 세웠고, 서적의 발행이 활발해지면서 개인도 책을 소지할 수 있었다. 이 무렵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이 발간되고, 가장 많은 서점이 즐비한 곳은 바그다드였다. 이슬람의 지식인들은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로마제국의 멸망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했던 인류 문명의 고전들을 보존해주었다. 아랍어와 <꾸란>을 중심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희랍철학의 고전은 물론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인도의 수학과 점목시계, 근대의 의학과 화학, 천문학 역시 이슬람의 과학과 연구에 힘입은 것들이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서구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부활하고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었던 배경에 이슬람이 있었고, 그 배후에 종이가 있었다.

/전성원 계간 향예문화 편집장·성공회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외화벌이 효자 ‘메이드 인 미추홀 악기’

인천 정채성 찾기
유동현의 사진, 시간을 깨우다
26. 인천산(産) 통기타, 세계를 노래하다

영화 ‘췌시봉’은 1960년대, 70년대 한국 가요계를 강타했던 포크의 열풍을 잘 묘사하고 있다. 포크 음악의 주된 악기는 ‘통기타’이다.

당시 젊음의 상징이었던 통기타의 대부분을 인천에서 생산했다. 인천에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무대를 주름 잡았던 대형 악기제조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표적인 업체는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였다. 지금은 주로 피아노를 생산하고 있지만 1970년대 말까지 기타가 주요 생산품이었다.

1958년 부평구 청천동에 터를 잡은 삼익악기는 처음엔 외국 악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로 출발했다. 1960년부터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단순 조립해 피아노를 제조했다.

독일에서 들여온 ‘호루겔’이라는 브랜드가 바로 그것이다. 삼익악기는 1965년 7월부터 기타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때 막 불기 시작한 포크 열풍에 힘입어 기타는 날개 돋쳐 팔렸다. 청바지 입고 어깨에 기타 하나 매고 있는 모습은 당시 대표적인 청춘의 심볼이었다. 공원, 열차 안, 캠퍼스, 교회 등 어디를 가든 통기타 소리가 들렸다. 삼익악기는 1973년 한국수출산업단지(부평구 효성동)으로 공장을 확장해 옮기면서 세계 메이저 악기업체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삼익·영창 등 주요업체 연고

주요품목 통기타 지구촌 장악

88년 수출 2억달러 돌파 기업

90년대 들어서 경영환경 악화

향토기업 대부분 지방·해외로

악기산업은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지역 고용에 많은 도움을 줬다. 밀폐된 허름한 공간에서 나무 먼지와 접착제 냄새를 맡으며 일했던 그들이 있었기에 가객(歌客) 김정호와 김광석 그리고 송창식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서울 영등포에 있던 영창악기는 1979년 인천 가좌동 8만5000㎡ 대지 위에 악기제조 종합 공장을 건립해 이전한다. 대단위 악기공장을 준공하고 연간 4800대의 그랜드피아노를 생산함으

로써 삼익악기와 더불어 세계 3위 악기제조업체로 발돋움한다.

쌍벽을 이루던 삼익악기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50개국에 기타 55만대, 피아노 3만대를 수출했다. 비슷한 시기 가좌동에 자리 잡은 기타 전문업체인 서진악기는 한 해 40만대의 기타를 생산해 전량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 회사는 매년 기타 하나로 당시 엄청난 액수인 3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미국 통기타의 돌출 하나는 ‘메이드 인 인천’이었다.

이렇듯 1980년대 인천은 명실공히 세계 악기의 본고장이 되었다. 1982년 미국 최대 악기업체 볼드윈사와 삼익악기사가 합작해 효성동에 한미악기를 설립한 것을 비롯해 가좌동 월드악기, 청천동 밀러악기, 오류동(인천 서구) 성우악기, 갑산동 콜트악기, 고잔동 한독피아노 등 크고 작은 악기 제조업체들이 인천에 자리 잡았다.

이 업체들은 1987년도에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이듬해 바로 다시 2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나라 외화 획득에 큰 공을 세운다. 사업이 잘되자 삼익악기는 실업축구팀까지 창단할 정도였다.

1990년대 접어들자 노사분규가 잦았고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이 주춤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창악기는 1995년 9월 15일 세계적인 흑인가수 스티비 원더를 인천 피아노공장으로 초청해 현장에서 즉흥



1965년부터 기타를 생산하기 시작한 청천동 삼익악기의 초창기 작업장의 모습. 비록 허름한 작업 환경이지만 그들의 손에서 ‘췌시봉’ 멤버들의 통기타가 만들어졌다.

연주를 하게 하는 등 제품 홍보에 나섰지만 지역의 악기업체들은 불황을 피해가지 못했다. 결국 세계 3대 피아노 생산업체인 삼익악기는 1996년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인천시는 지역의 악기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3년도부터 인천악기박람회 개최했다. 격년제 팔로 열리던 악기박람회는 현재 인천에서의 개최는 중단된 상태다. 대표적 향토기업이

있던 영창악기는 경영 악화로 현대산업개발로 흡수된 후 2006년 본사를 성남시로 이전했고 법정관리를 벗어난 삼익악기도 2011년 충북 음성군으로 옮겼다.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차지했던 콜트악기는 2007년부터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으며 예전만큼 신나는 기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동현 국문남인천 편집장

TV 편성표 2월 23일(월)					
OBS	KBS1	KBS2	MBC	SBS	EBS1
06:00 OBS 뉴스 15 팔도 식객 45 OBS 뉴스 645 07:00 TV 주치의 15 ㉠ ㉡ 독특한 연애 뉴스 08:00 ㉢ 시트콤 <코포> 30 ㉣ 로드다큐 <만남> 09:30 TV 주치의 45 OBS 뉴스 945 10:05 ㉤ 발효가족 11:15 Music & Movie 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 트트생생체조 11:00 네트워킹 특선 춘춘춘 55 ㉡ 시청자 칼럼 12:00 KBS 뉴스 12 55 바쁜날 고운말 1:00 ㉢ 대조영 55 ㉣ TV동화 빨간 자전거 2:00 ㉤ 다큐 고향연가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05 ㉥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4:10 ㉦ 역사지평 그날 5:00 KBS 뉴스 5 20 시사시간	06:00 2TV 아침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09:00 ㉠ TV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 여유만만 10:40 ㉢ 블러드 12:55 ㉣ 이웃집 찰스 2: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 3:20 ㉤ 엄마의 탄생 4:10 자동공부책상 위기 40 TV 유치원 콩다콩 5:10 ㉥ 외계가족 즐리폴리 40 동물의 세계	06:00 MBC 뉴스투데이 07:50 ㉠ 폭풍의 여자 08:30 ㉡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45 ㉢ 기분 좋은 날 11: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2:00 MBC 정오뉴스 20 ㉣ 어영차 바다야 1:55 날씨와 생활 1:10 ㉤ 꾸러기 식사교실 40 푹? 푹! 키즈스쿨 스페셜 2:30 어린이 직업탐험대 3:00 MBC 뉴스 10 내 사랑 똥 4:25 ㉥ 압구정 백야 5:00 MBC 이브닝 뉴스	06:00 모닝와이드 08:30 ㉠ 황홀한 이웃 09:10 ㉡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30 ㉢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45 ㉣ 순간포착 스페셜 1:55 날씨와 생활 2:00 네트워크 현장 3:00 SBS 뉴스 10 ㉤ 꾸러기탐구생활 스페셜 4:00 ㉥ 프리즘 스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00 SBS 뉴스 퍼레이드 30 세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07:00 ㉠ 코코몽2 15 ㉡ 놀이터 구조대, 뽀잉 30 ㉢ 풍선 꼬끼리 발루보 45 ㉣ 꼬마버스 타요 08:00 당동당 유치원 20 ㉤ 두다다콩 35 방귀대장 뽀롱이 50 골디와 친구들 09:05 ㉥ 원더블즈 20 ㉦ 출출! 슈퍼핑크 35 아기 고릴라 동동 40 부모교과 10:10 EBS 특강 40 최고의 요리비결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20 ㉠ 세계 테마 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0 EBS 스페이스 공간 1:05 지식채널e 10 ㉡ 생활백과 40 즐거운 수학 EBS MATH 50 사이틴 2:00 ㉢ 두키 탐험대 2:15 우당탕탕 아이쿠 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45 코코몽2 3:00 신나는 요정 학교 15 지구를 지켜라 30 올리비아 45 피터 래빗 4:00 ㉣ 당동당 유치원 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35 ㉤ 오스카의 오아시스

오늘의 운세 2월 23일 (음력 1월 5일)		한국예술인협회 인천지부 주민의 행복사주 (작명) ☎ (032) 343-0006	
 子	48년 매사는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60년 인맥이나 정에 휘말리지 말고 진행하라 72년 의지가 굳으면 뜻을 이루는 것이다 84년 친구의 서운한 마음에 심기 불편해 지는 날	 丑	49년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61년 기회가 찾아오니 행복이 가득한 날이다 73년 활발하게 움직이는 하루가 되니 즐겁다 85년 장거리 여행이나 외출 삼가는 것이 길하다
 寅	50년 쉬어간다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때이다 62년 승진수이며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라 74년 신변의 변동변화에 적응할 시기이다 86년 과욕 버리면 작은 것은 이루어지는 날이다	 卯	51년 서서히 운이 상승세에 타는 시기이니 기쁘다 63년 달콤한 유혹은 배제할 때이다 75년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 함께 해보라 87년 지금은 어려워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辰	52년 생각지 않은 용돈이 생기니 기쁘다 64년 항상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76년 분위기 쇄신에 의욕이 넘치는 날이다 88년 대화 속에서 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巳	41년 귀인을 만나 어려움이 풀리는 시기이다 53년 출라간 추억은 나뭇잎에 띄워 보내라 65년 선후배의 도움으로 막혔던 일이 해결된다 77년 신임을 받아 인기가 상승하니 기쁘다
 午	42년 안정감이 돌아 마음이 평안해 진다 54년 많은 계획에는 현실이 따라 주워야 한다 66년 기회인 것 같으나 시기상조이니 자제하라 78년 후배의 도움으로 재운이 상승하니 기쁘다	 未	43년 마음의 동요를 자제 할 때이다 55년 청탁 받으려면 정당한 정제로 거절해야 한다 67년 마음의 번뇌를 다스려야 할 시기이다 79년 오늘은 남의 일에 참견 말고 내 일이나 하라
 申	44년 서류나 문서의 하자가 발생하니 주의하라 56년 자신의 주장을 조금 양보 할 때이다 68년 준비한 사람은 지금 노를 저을 수 있다 80년 주관대로 생각을 분명히 할 때이다	 酉	45년 서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 발전한다 57년 활동하면서 결과에 주목 할 때이다 69년 부부등반 소풍이나 영화 관람을 해보라 81년 연인사이에는 불화나 갈등의 조짐이 예상된다
 戌	46년 자신의 의지나 생각대로 진행해 보라 58년 주의해 보라 겉은 화려하나 속이 비었다 70년 추진하는 일에 좋은 소식이 오니 기쁘다 82년 탐구하는 자세는 발전의 길이 열린다	 亥	47년 부동산이나 증권에 관심이 가는 날이다 59년 체면보다는 내실을 곤고히 할 때이다 71년 오늘은 회식자리는 피하는 것이 길하다 83년 항상 앞날을 위해 덕을 쌓는 것이 좋다

이제 몸에 좋은 보리현미국수를 드세요!

이런 분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 당뇨, 혈압 때문에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
- 아토피를 앓고 있는 자녀
- 밀가루의 소화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

보리, 현미의 효능

- 다이어트 및 변비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 당뇨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 피부미용과 해독작용이 탁월합니다.
- 성장기 자녀의 두뇌개발과 뼈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 다량의 식이섬유를 함유해서 대장기능 개선에 좋습니다.

보리현미국수는?

백미는 도정과정에서 95%의 영양소가 없어지고 탄수화물만 가득해 집니다. (주)생명나무 보리현미국수는 영양은 좋으나, 거친 식감 때문에 먹기가 어려웠던 현미와 보리를 발효가공을 통해 부드럽고 맛있게 가공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미, 보리와 상황버섯만을 원료로 가공하고 밀가루전분, 글루텐, 보존제등은 첨가하지 않아 온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은 건강 식품입니다.

PLUS 상황버섯

보리현미국수

無 첨가

전분 밀가루 글루텐 방부제

건국대학교 CARI(세포활성연구소) 기술제휴

전치국수 비빔국수 동치미국수 황태국수

맛 좋은 보리현미국수 드시고 건강하세요!

• 가맹점 모집(소자본 1인 창업 가능)
• 기존 식당 메뉴추가
• 관공서, 교회, 사할 등 단체주문 환영

문의 전화 : 032)546-1121
제조 판매원 : (주)생명나무 인천총판
www.ltmall.co.kr

기술연마 착착 SK 열정만 더하면 ‘OK’

LG전 0대 2 패...김용희 감독 “수비·주루 이상무...치열함 가져야”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가 LG와의 연습경기에서 0대 2 패하며 연습 경기 전적 3승 2패를 기록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을 진행 중인 SK는 22일 이시카와 구장에서 다섯번째 연습경기를 치렀다. 이날 경기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양 팀이 6회말까지만 치르기로 합의했다.

지난 20일 첫 라이브 피칭에서 직구, 체인지업 등 총 30개를 던지면서 컨디션을 점진한 김광현은 이날 연습경기에서 첫 등판했다. 김광현은 1회말 선두타자 오지환과 김용희를 직구와 커브로 연속 삼진을 잡으며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3번 채은성에게 안타를 허용했으나 후속타자 이병규를 커브로 삼진을 잡고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채웠다. 2회말 김광현은 1사 후 김제성과 문선재에게 각각 안타와 2루타를 허용하며 1사 2, 3루 위기를 맞았다.

다음 타자 김재율의 3루 땅볼로 1실점 했으나 이후 손주인을 2루 땅볼로 아웃시키며 이닝을 마쳤다. 이날 김광현은 2이닝 동안 9타자를 상대로 직구 21구, 커브 9구, 슬라이더 8구, 체인지업 4구 등 총 42개를 던지며 3피안타, 3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최고구속 147km.

김광현은 “첫 등판치고는 좋지 않았다. 무엇보다 볼 개수가 많았다. 체인지업은 더 연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K는 2회초에 이재원 2루타와 나주환의 안타에 이은 2루 도루로 1사 2, 3루 득점 찬스를 만들었으나 김연훈과 김재현이 각각 삼진과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며 득점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찬스를 살리지 못한 SK는 2회말에 곧바로 실점했다. 1사 2, 3루에서 8번 김재율의 3루 땅볼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선취점을 허용했다. 3회말에도 1사 3루에서 박종훈의 폭투로 한 점을 더 내줘 0대 2로 끌려갔다.

SK는 4회초 1사후 이재원의 안타와 나주환의 볼넷으로 1, 2

루 득점 찬스를 만들었으나 김연훈이 병살타를 치며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득점에 실패한 SK는 LG에 0대 2로 졌다.

SK는 김광현(2이닝 1실점)-박종훈(1이닝 1실점)-채병용(1이닝 무실점)-진해수(1이닝 무실점)-서진웅(1이닝 무실점)이 이어 던졌다.

경기를 마치고 김용희 감독은 “광현이가 오늘은 그동안 연마했던 여러가지 구종을 시험 삼아 던졌다. 비록 실점했지만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다. 타자들의 방망이가 아쉬웠지만 브라운이 좋은 타이밍으로 맞아가고 있어 다행이다. 최근 연습경기에서 수비와 주루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오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선수들의 경기에 임하는 자세다. 그라운드에서 좀더 치열함과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그 점을 선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SK는 23일 구시카와 구장에서 넥센과 연습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22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현 우루마 시 이시카와 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스프링 캠프 LG트윈스와 SK와이번스의 경기. 경기 시작 전 SK 좌완 투수 김광현이 볼펜에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현 신무기 ‘체인지업’ 실전 투입...“나쁘지 않았다”

스프링캠프 들어 첫 실전 투구에 나선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좌완 에이스 김광현(26)은 “전체적으로 공은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프링캠프 들어 처음으로 실전 마운드에 오른 김광현은 최고시속 147km를 기록했고, 최근 집중 연마한 체인지업을 포함해 슬라이더와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실험했다.

체인지업은 최근 김광현이 새로운 구종으로 장착하기 위해

가장 공을 들어 연습하는 부분이다.

그는 왜 하필 체인지업이라는 질문에 “주변에서 워낙 체인지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내가 공을 많이 던지는 편이기도 하고 타자들도 빠른 공을 보고 들어오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맘때에는 시속 153km가 나왔지만, 지금은 구속에 신경 쓸 필요 없다”면서 “똑같이 세게 던졌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김광현은 경기 내용에 크게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강한 바람 탓에 6이닝으로 끝난 이날 경기가 SK의 0대 2 패배로 끝나면서 패전 투수가 됐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하지만 김광현의 첫 투구를 지켜본 사령탑 김용희 SK 감독은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김 감독은 그는 “지금은 완벽하게 똑같은 투구 폼에서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많이 맞아 봐야 김광현도 빨리 클 수 있다”고 덧붙혔다.

/연합뉴스

핵심 우완계투 윤길현 복귀

퓨처스 캠프 마운드 오를듯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도중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이탈한 SK 와이번스의 핵심 우완 계투 요원 윤길현(32)이 3월 시범경기에서는 정상적으로 마운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SK 구단에 따르면 허벅지 부상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던 윤길현은 22일 대만 타이중에서 진행 중인 팀의 퓨처스(2군)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한다.

윤길현은 앞서 이달 2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치른 팀의 1차 스프링캠프 도중 오른쪽 허벅지 뒷근육(햄스트링)을 다쳐 2차 스프링캠프에 동행하지 않고 귀국했다. 한 시즌을 안정적으로 버텨낸 윤길현은 올 시즌에도 SK의 우완 핵심 계투로 중용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윤길현의 부상이 심할 경우, SK의 ‘뒷문 구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가 22일 대만 캠프로 합류한다는 것은 바로 훈련할 몸 상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를 상당 부분 털어낸다.

안양 한라 아이스하키단 정규리그 정상

하이원전 승리...5년만에 통산 3번째



‘안양 한라 아이스하키단’이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올 해로 창단 20년을 맞은 안양 한라는 시즌 최종전서 하이원전 3대 1로 승리, 승점 99점을 획득하며 통산 3번째 정상에 올랐다. 안양은 지난 18일 고양 어울림누리 빙상장에서 열린 하이원과의 경기에서 선취골을 허용했지만 박우상, 신상훈의 골과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3대 1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승점 3점을 추가한 안양은 2위 사할린과의 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이번 우승은 5년 만이다.

지난 시즌 주축 선수들의 상무 입대로 정규리그 6위에 그치며 강팀 이미지에 상처를 입었던 안양 한라는 올 시즌 대대적인 팀 체질 개선을 통해 다시 강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아이스하키 강국 체코 U18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이리 베베(Jiri Veber)감독을 새로 영입하고, 대대적으로 선수단을 개편하면서 포지션 파괴에 가까운 새로운 ‘Total Hockey’를 선보이며 경기를 차지했다. 이리 베베 감독은 시즌 내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탄탄한 조직력의 아

이스하키를 선보였다.

또 선수들을 고르게 기용하며 경기 후반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토탈 하키로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선수들 또한 신규 조화를 이루며 끈끈한 팀워크를 구축했다. 군 제대 후 팀에 복귀한 고참 선수들은 젊은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했고, 젊은 선수들은 패기를 바탕으로 상대 선수들을 괴롭히며 팀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번 정규리그 우승으로 안양 한라는 2003년 리그 설립 이 후 3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이루어 냈다.

안양은 오는 3월 7일부터 안양 빙상장에서 4위~5위의 승자와 5전 3선승제의 플레이 오프를 거쳐 통산 세번째 챔피언에 도전할 예정이다.

안양이 플레이 오프에서 승리하면 2위~3위 대결의 승자와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난다.

올 해로 12번째 시즌인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는 2003년부터 극동아시아 지역의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의 팀들이 국가간 통합 리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48경기의 홈 앤 어웨이 방식의 정규리그를 거쳐 5전 3선승제의 플레이 오프 및 플레이 오프 승자간의 챔피언 결정전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국내 구단 경기에서 kt 유니폼을 처음으로 착용하고 1회초 이대형 선수가 타석에서 초구를 기다리고 있다.

선발진 무실점...설연휴 2연승 시즌전망 ‘맑음’

어원·시스코·박세웅 등 호투...역전포 방망이 ‘뒤틀심’ 발휘도



kt wiz 프로야구단(대표이사 김영수)이 설연휴기간중 열린 연습경기에서 2승을 거둬 올시즌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kt wiz는 지난 21일 오후 1시 일본 가고시마 고쿠부 구장에서 열린 실업팀 가쓰사 매직과의 경기에서 마르테와 윤도경 등의 활약으로 5대 2로 승리했다.

0대 0으로 맞서던 6회초 1사에 김사연이 우전 안타로 출루한 뒤 마르테의 좌월 투런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은 kt는 6회초에만 4점을 뽑았다. 7회말 1실점한 kt는 9회에 1점씩을 주고받아 5대 2로 경기를 끝냈다.

선발로 나선 어원은 1%이닝 1피안타 무실점했고, 이어 등판한 시스코도 1%이닝 1피안타 4탈삼

진 무실점했다. 승리는 2이닝 1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한 김민수가 가져갔고, 이창재도 1이닝을 탈삼진 1개 포함 퍼펙트로 막았다.

타선에서도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빛났다. 마르테는 선제 투런홈런 포함 2타수 1안타 2타점을 만들었다. 윤도경도 2타수 1안타 2타점으로 승리에 기여했다.

이에 앞선 지난 19일 오후 1시 가고시마 가모이케 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연습경기 1차전에서 3대 1로 승리했다. 프로팀과의 대외 평가전에서 첫 승리다.

이날 경기서 kt는 선발 투수로 박세웅이 마운드에 올라 3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2번째 투수로 나선 정대현은 2이닝 4피안타 3사사구(2볼넷) 2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kt는 이대형(중견수)-신명철(2루수)-조종근(1루수)-김동명(좌익수)-배병욱(우익수)-윤도경(지명타자)-김영환(3루수)-안준열(포수)-김선민(유격수)의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양 팀은 3회까지 0대 0으로 팽팽하게 맞서다 롯데가 먼저 선취점을 올렸다. 롯데는 4회말 1사 후 짐 아두치가 볼넷, 김대우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해 1사 1, 2루 기회를 잡았다. 이후 오승택이 좌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이후 kt는 8회초 박경수가 동점 솔로 홈런을 쳐내고, 김동명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역전 투런포를 성공시켜 3대 1을 만들었다.

조범현 감독은 “리드 당하는 상황에서 경기 후반 타자들이 뒤틀심을 발휘하며 역전 경기를 만든 것은 고무적이나 투수들은 경기 조율 능력 및 경험에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사진제공=kt wiz

FC안양-㈜하이트진로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소상공인 홍보·관광객 맥주 혜택

FC안양은 ㈜하이트진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이올렛 파트너’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소상공인이 FC안양의 VI

P간회원권을 구매하면 하이트진로의 대표맥주 브랜드 ‘하이트’를 5% 추가공급하고 홈 경기시 관객들은 선착순 제공되는 하이트 3병의 무료 쿠폰을 이들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바이올렛 파트너가 되는 소상공인에게는 FC안양 공식 홍보물과 홈 경기 50% 할인 티켓(매

달 50매)가 제공되고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응원엽서로 노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그리고 우수 파트너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광판 광고 인 터뷰를 통해 업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박영조 단장은 “하이트진로와 함께 팍팍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



리디아 고 ‘6번째 우승컵’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22일 호주 로열 멜버른 골프클럽에서 열린 호주 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후 트로피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 제패 첫 걸음...K리그 구단 ‘첫승’ 도전



국내 프로축구 K리그를 대표하는 구단들이 아시아 정벌에 나선다.

전북 현대, 수원 삼성, FC서울, 성남FC는 오는 24일, 25일부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본선 조별리그에 들어간다.

이들 구단은 각각 K리그 클래식 1~3위와 FA(대한축구협회)컵 우승으로 출전권을 획득했다.

작년 K리그 클래식 챔피언인 전북은 24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가시와 레이솔(일본)과 E조 1차전을 치른다.

전북은 가시와, 산둥 루닝(중국), 빈둥(베트남)과 한 조에 편성됐다.

최강희 감독의 공격 축구가 윤희는 제대로 꽃

성남·수원·서울·전북 4팀 출전...우승 다짐

성남, 내일 泰원정·수원, 25일 안방서 1차전

을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은 작년에는 일찌감치 16강전에서 국내 라이벌 포항 스틸러스에 일격을 당했다.

서정원 감독이 이끄는 수원은 작년에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지 못했다가 올해 K리그 클래식 준우승 구단으로서 재합류했다.

모토는 명예회복으로 설정됐다.

수원은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우라와 레드(일본)와의 G조 1차전을 치른다.

K리그 전통의 강호인 수원은 2010년 FA컵 정

상에 오른 뒤 졸공 무관에 그쳐 우승컵에 대한 갈증이 심하다.

특히 2013년 챔피언스리그에서 서 감독이 이끄는 수원은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든 터라 올해 설욕 의지는 더 강렬하다.

수원은 우라와, 브리즈번 로어(호주), 베이징 궈안(중국)과 같은 조에서 다룬다.

성남은 작년에 강등을 걱정하던 처지였으나 극적으로 FA컵에서 우승해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땀었다.

K리그 클래식을 9위로 마친 클럽이 챔피언스리그에 나선다는 사실에 불편한 팬들이 있었다.

그러나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속담을 믿는 기대도 많다.

성남이 K리그 최대 우승 구단, 양년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구단으로서 여전히 저력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물론 국내 최고의 지략가로 평가받는 김학박 성남 감독에 대한 기대도 크다.

성남은 오는 24일 태극 부리람 스타디움에서 부리람 유나이티드와의 F조 원정 1차전에 들어간다.

조별리그 경쟁 상대는 감바 오사카(일본), 귀저우 런허(중국), 부리람이다.

서울은 최근 챔피언스리그에서 K리그 구단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구단이다.

최용수 감독이 이끄는 서울은 2013년 결승에 올라 광저우 헝다(중국)와 비겼으나 원정 다득점에서 밀려 우승컵을 내줬다.

작년에도 웨스턴 시드니(호주)에 4강에서 석패해 우승이 불발했다.

서울은 올 시즌 2013년, 작년 챔피언인 광저우, 웨스턴 시드니, 가시마 앤틀러스(일본)과 함께 H조에 편성됐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죽음의 조’로 혈투가 예고됐다.

서울은 오는 25일 광저우 톈허 스타디움에서 광저우와 H조 1차전을 치른다.

올 시즌 공격 축구를 모토로 내건 서울은 최근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하노이 T&T(베트남)를 7-0으로 대파하며 화력을 뽐냈다.

/연합뉴스·사진제공·수원삼성·성남FC

감독·선수가 뽑은 올 시즌 득점왕은

이동국·김신욱 투표 공동 1위...강력 후보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12개팀 감독과 선수들은 올 시즌 득점왕 후보로 이동국(전북)과 김신욱(울산)을 뽑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앞으로 다가온 K리그 클래식 공식 개막전(3월7일)을 앞두고 12개팀 감독과 선수 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이동국과 김신욱이 가장 강력한 득점왕 후보로 뽑혔다고 22일 밝혔다. 이동국과 김신욱은 총 24표 중 각각 8표를 얻어 공동 1위에 올랐다.

올해 전북에 입단하며 K리그에 6년만에 복귀한 에두는 4표를 받았다.

에닝오(전북), 이석현(서울), 모리조(포항), 스테보(전남)도 각각 1표씩을 받았다.

앞서 K리그 역대 득점왕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구단은 서울, 최다 수상자는 ‘대안’이었다.

FC서울(역키금성과 LG 시절 포함)은 역대 총 7차례 득점왕을 배출했다.

대안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연속 시즌 득점왕을 차지하며 역대 최다 득점왕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대안 이외에 이기근(1988,1991), 윤상철(1990,1994), 김도훈(2000, 2003/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2회 득점왕을 차지한 바 있다.

역대 득점왕은 국내 선수가 스무번, 외국인 선수가 열두번을 각각 차지했다.

K리그 출범 초기에는 국내 선수의 득점왕 배출 비율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외국인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2000년 이후 외국인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것은 10차례, 국내 선수가 득점왕에 오른 것은 5차례였다.

우승팀에서 득점왕이 배출된 시즌은 총 9차례 있었다. 또 득점왕이 시즌 MVP를 동시에 거머쥔 경우도 2003년 김도훈(성남), 2009년 이동국(전북), 2012년 대안(서울) 등 총 3차례가 있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류현진 “LG 트윈스 공동훈련 큰 도움...모든 구종 다 던졌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글렌데일의 캐럴백 랜치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프링캠프 이틀째 훈련에서 처음으로 불펜에 오른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원소 투수 류현진(28)은 프로야구 LG 트윈스와의 공동 훈련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4가지 구종을 활용해 35개를 던진 류현진은 “모든 구종을 다 던졌고 생각만큼(제구가) 잘됐다”고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릭 허니컷 투수코치는 첫 불펜 투구에서 25~30개를 던지고 차츰 투구수를 늘려가자고 했으니 오늘은 내가 10개 정도를 더 던졌다”면서 “계속 해오던 대로 했으면 40개 이상 던져야 했지만 페이스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장소에서 1차 스프링캠프를 치른 LG와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가까이 함께 훈련한 류현진은 다저스 스프링캠프 합류 전까지 이미 4차례 불펜에서 던져 어깨를 단련했다.

돈 매팅리 감독, 릭 허니컷 투수코치 등 팀 관계자 앞에서 던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류현진은 절친한 선배 봉중근이 속한 LG와 공동 훈련에서 정서적인 부분은 물론 컨디션 유지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내 몸과 운동 방식을 잘 아는 김용일 LG 트레이닝 코치가 많이 보살펴줬고, 김코치가 알려준 컨디션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소화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맹활약...신한은행 KB잡고 2위 굳히기

68대 60 승리...남은경기 전승·1위 우리은행 전패팬 우승 가능



인천 신한은행이 카리마 크리스마스의 맹공을 앞세워 정규리그 우승을 꺾고 정규리그 우승의 불씨를 희미하게나마 살렸다.

하지만 23일 춘천에서 열리는 춘천 우리은행 한새와 구리 KDB생명과의 경기에서 우리은행이 승리하면 신한은행의 우승 불씨는 그대로 꺼진다.

현재 리그 선두인 우리은행은 이날 경기에서 승리하면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2014-2015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다.

신한은행은 21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국민은행에 68대 6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2위 신한은행은 21승 9패를 기록, 1위 우리은행(25승5패)과의 승차를 4경기로 줄였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남은 5경기에서 신한은행이 모두 승리하고 우리은행은 모두 진다면 신한은행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이날 신한은행이 패했다면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은행의 3회 연속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신한은행은 51대 50으로 앞선 채 맞은 4쿼터 초반 김단비가 3점을 쏴고 이어진 공격 기회에서 수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단독 돌파에 이은 레이업으로 2점을 더 보태며 56대 50을 만들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가 김규희의 어시스트를 앨리움 슈팅으로 마무리, 2점을 보탤고 곧바로 골밑에서 2점을 더하며 60대 52로 격차를 더 벌렸다.

국민은행은 이날 성공률이 4%에 불과했던 외곽슛이 끝내 살아나지 않으면서 추격에 박차를 가하지 못했다.

크리스마스는 팀 득점의 절반이 넘는 37점을 쏟아내고 리바운드도 15개를 잡아내는 더블더블 활약으로 신한은행의 승리를 견인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사진제공·한국여자프로농구



장성복 2년 연속 설날 씨름 백두장사 등극

손명호와 결승서 3대 1 제압

‘대기만성형 선수’ 장성복(35·양평군청)이 2년 연속 설날대회 백두장사를 차지했다.

장성복은 21일 경상북도 경산체육관에서 열린 2015 설날장사씨름대회 백두급(150kg 이하) 결승에서 손명호(32·의성군청)를 3대 1로 제압하고 꽃가마에 올랐다.

8강전에서 2011·2013 천하장사 이슬기(현대코끼리)를 2대 1로, 4강에서 박한샘(수원시청)을 2

대 0으로 누른 장성복은 손명호와 결승에서 격돌했다.

손명호의 잡채기를 막지 못해 첫판을 내준 장성복은 잡채기로 응수해 둘째 판을 따냈다.

셋째 판에서 뿌러치기로 손명호를 눌렀던 장성복은 넷째 판에서 기습적인 안다리 공격에 성공해 우승을 확정했다.

장성복은 “설날대회 2연패를 위해 동계 훈련 기간에 정말 열심히 훈련했다”며 “시즌 첫 대회서 좋은 결과를 났으니, 올해는 천하장사 등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김선교 양평군수님과 팀 관계자들이 대회마다 응원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힘이 난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한 뒤 “씨름으로 즐거운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백두장사다운 바람을 드러냈다. 2005년 실업무대에 진출한 6년 동안 무명선수로 지내다 장성복은 30대에 접어들어 2011년 9월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생애 첫 백두장사에 올랐다.

2012년과 2013년 무관에 그치면서 다시 그의 이름은 잊혀졌다. 하지만 지난해 설날대회와 추석대회에서 모두 백두장사를 차지하며 ‘장성복 시대’를 열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관광버스 ‘인천명소 불법주정차’ 버젓

중구 차이나타운·남구 시민회관 도로위 줄지어 주차
운전자 교통혼잡 불편·보행자 사고위험 불만 목소리
기사 “이동 기름값·시간 부담…단속요원 회피 감수”

인천지역 도심 및 관광명소 근처 도로가 불법 주정차한 관광버스(사진)들로 가득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중구의 차이나타운 앞 도로에는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서자 버스 안에서서는 관광객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수 십명의 관광객들이 내려 사라진 뒤에도 인근 주차장으로 향해야 할 버스들은 요지부동. 중부경찰서가 바로 앞에 있지만 20분 가까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고, 도로 위에서 버스를 주차했던 탓에 이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관광버스를 요리조리 피해 운전을 해야만 했다.

버스기사 A씨는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쓰는 기름값과 시간을 생각하면 단속요원들 눈을 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서라도 차라리 이 곳에다 주차를 하는 게 더 낫다”며 “특히 서울에서 온 차량은 차고지도 인천에 없기 때문에 기존 인천 버

스에다 서울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구 시민회관 근처도 관광버스들로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주중 오전 6~7시, 오후 8~9시쯤 시민회관 주변에는 서울이나 강원도 등 시외로 향하는 관광버스들이 집결하고 흩어지는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어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피해야 할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로 꼽힌다.

관광회사들이 이 곳 주변에 밀집해 있고, 1호선 주안역 등 교통편이 편리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관광객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도 유리한 위치로서 관광버스들의 집결지가 됐다.

출근하는 차들로 북비는 이 곳에 버스들이 모여있다고보니 차량들이 차선을 바 꾸느라 뒤엉켜있고, 보행자들도 버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부평역 주변 또한 수도권 대학교들의 스쿨버스, 주말에는 웨딩을 하객차량과 지하상가 손님을 태우는 관광버스들이 출구 주변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평구 등 각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 1월 관광버스 등을 포함해 모두 9357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설립도 검토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이마저도 어렵

다는 입장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일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월정액으로 이용할 수 없어 비용면에서 부담을 갖게 돼 도로변에 주차를 해 교통혼잡이 발생한 다”며 “일반 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도 없는 데다 도심 주변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 자체도 없고, 주차장 1면을 확보하는데 1억원의 예산이 들어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희진 기자·양준호 인턴기자 hijung@incheonilbo.com

인천지검 부장검사 4명 ‘서울지역 발령 겁경사’

고민석·박찬호·정순신·이진동 ...전국 지방검찰청 중 최다 임명

인천지검이 2015년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부장검사 4명이 서울에 임명하는 경사를 맞았다.

법무부는 최근 안병익 창원지검 진주지청장과 김한수 법무부 대변인을 각각 인천지검 1차장, 2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 등 1009명의 진보·신규 임용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인천지검 부장검사 4명이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영전했다.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 박상은 의원 등 해운 비리를 파헤친 고민석 형사3부장과 박찬호 형사4부장은 각각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과 금융조사1부장으로 임명됐다.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수사를 담당한 정순신 특수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KT&G 면세 담배 밀수 사건을 해결한 이진동 외사부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으로 발탁됐다. 이외에도 송인택 1차장검사

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현상 2차장검사는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부장검사 4명이 한 번에 서울에 임성한 것은 인천지검에 유례가 없는 일로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사를 통해 인천지검에는 이승영 부장을 단장으로 한 중요 경제범죄조사단이 꾸려졌다. 조사단은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세무비리 폭로”...KT&G에 수억원 갈취

40대 전직원 공갈협박의 구속

세무 비리를 국제청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KT&G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전 KT&G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세무 비리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지난 2011년 12월과 2012년 12월 2차례에 걸쳐 KT&G로부터 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1년 9월 회사를 그만둔 A씨는 KT&G 재직 당시 재무실 산하 세무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KT&G의 세금 탈루 규모를 약점 삼아 같은 해 10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 신문에 ‘세무 비리를 국제청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성 글을 올린 것

영종대교 운영사 ‘106중 추돌’ 과실여부 조사

警,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 소환...초동조치·매뉴얼 준수 등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의 과실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22일 인천서부경찰서 사고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사고 당시 기상청 정보수집시스템 등을 통해 기상 관련 시설물이 정상 작동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영종대교를 통과한 버스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한편, 시간대별 안개 농도도 분석하고 있다.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매뉴얼에 맞춰 조치했는지도 알아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 18명을 불러 초동조치,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대형사고 유사 판례를 검토하면서 신공항하이웨이가 시설물 안전 관

리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전체 사고차량 106대 확인을 끝내고 운전자 93명, 동승자 7명 등 100명을 상대로 조사를 끝냈다. 블랙박스 47개와 운행기록계 25건도 수거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맨 앞 무리 10대 외에도 2~3번째 무리 96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16명으로 별도 팀을 꾸려 방문·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위로뿐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안내 등 실질적 도움을 주고,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월미도 바이킹’ 안전바 풀려 ‘아찔’

탐승자 타박상·정신적 충격 호소

월미도 고공 놀이기구에서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설 연휴를 맞아 나들이에 나선 관광객들은 놀란 가슴을 솥여내렸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6시50분쯤 중구 북성동 월미도 놀이공원에서 고공 놀이기구인 일명 ‘바이킹’의 안전바가 풀리는 사고가 났다고 22일 밝혔다.

사고 당시 바이킹에는 관광객 14명이 타고 있었다. 바이킹은 안전바가 풀린 채 2~3차례 더 왕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가 난 바이킹은 지난 1991년 6월 설치된 것으로 운영된 지 20년이 넘는 시설이다. 현장에 게시된 안전 점검 현황판을 보면, 지난 2014년 6월13일 안

전성 검사를 받아 오는 6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일일 안전 점검 결과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아 평소처럼 운행됐다.

월미도에선 놀이시설 업체 4곳이 각각 하나씩 바이킹을 운영한다. 이번엔 사고가 난 업체는 바이킹과 범퍼카를 소유한 곳이다.

주변 한 상인은 “다른 곳에 비해 장사가 안 되는 곳이라 한 달 가까이 운영하지 않았던 바이킹”이라며 “설 연휴를 앞두고 관광 수입을 올리려다가 작동한 지 이틀 만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현재 바이킹은 운영이 중지된 채 출입이 가로막혀 있다. 경찰은 기계 결함과 운전 미숙 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아직 안전바가 작동 안 한 이유를 모른다. 23일부터 정비에 들어가면 왜 고장 났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금품받고 양심 판 공무원

뇌물수수·비밀누설 검찰 6급 수사관 불구속 기소

인천의 한 검찰 수사관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알선 뇌물수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6급 수사관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B(53·여)씨와 공범 C(5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인 B씨로부터 ‘다른 수사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경매 방해 관련 진정 사건을 해결해 달거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는 자의 수배를 풀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고 합의를 해야 한다고 귀뜸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B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A씨가 사건 담당 수사관들을 상대로 사건 해결을 청탁했는지, 돈을 건넸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친한 수사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금품을 챙기는 여성 브로커 2명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B씨와 C씨를 구속한 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B씨와 C씨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모두 1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액수가 적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도 “금품을 받은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만큼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준·최성원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귀성행렬 가벼운 발걸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한 덕적도-인천행 여객선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빈집사전신고제 홍보 미흡 설 연휴 사건예방 무용지물

인천 경찰이 길었던 설 연휴를 앞두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빈집사전신고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을 나선 시민들 중 이 제도를 미리 알고 신청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이유에서다.

22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연휴기간 집중돼 발생하는 빈집털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빈집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가까운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귀금속과 같은 중요 물품을 맡길 수 있다.

여기에 경찰은 신고된 주소지 주변을 3시간 단위로 순찰하고, 문과 창문 등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확인한다.

외출 시간 동안 시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무난히 길었던 이번 설 연휴에는 빈집사전신고제가 별다른 기능을 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홍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연휴 전날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한 탓에 신청자 역시 극소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7일 오후 2시 기준 0건이었던 신고는 인천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5시 기준 97건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그러나 17일 이후 추가된 신청자에 대한 집계는 이날까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김모(35)씨는 “이런 제도를 미리 알았다면 신청하지 않을 주민이 누가 있겠나.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제도를 모르게 한 것이 문제다”며 “특히 신청은 연휴 하루 전이 아니라 최소한 3일 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와 파출소에 공문이 늦게 전달돼 시민들이 미리 신청하지 못한 것 같다”며 “17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자 집계는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최성원 기자·양준호 인턴기자 csw0405@incheonilbo.com



제15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The 15th Incheon International Half Marathon

국제육상연맹(IAAF)인증 하프국제대회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2015년 1월 19일(월) ~ 3월 2일(월) 오후 6시
선착순 접수마감

전화: 032)452-0191~4 / 팩스: 032)763-8828

www.incheonmarathon.co.kr



2015년 3월 29일(일) 집결: 오전 8시(9시 출발)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

하프코스 / 10KM코스 / 5KM코스

- 참가비 • 하프코스 & 10km코스 3만5천원, 5km코스 2만5천원
- 코스 • 인천 문학월드컵경기장 ~ 송도국제도시(반환)
- 참가자격 • 만18세 이상의 건강한 남·여(10km코스, 5km코스는 참가자격 제한 없음)
- 제한시간 • 하프코스 2시간30분, 10km코스 1시간30분, 5km코스 1시간
- 기념품 • 모든 참가자 기념품, 책자, 메달, 기록증
- 접수 • 홈페이지(www.incheonmarathon.co.kr) / 이메일(3800@hanmail.net)
- 문의 • 032-452-0191~4 / 팩스 : 032-763-8828
- 주최 • 인천일보 · (사)대한육상경기연맹 ·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
- 주관 • 인천광역시육상경기연맹 ·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
- 후원 • 인천광역시 · 문화체육관광부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체육회
- 협찬 • 에몬스가구



참가자 전원에게 고급 기능성 슬림핏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레깅스를 기념품으로 드립니다.